

코리안 뉴스위크

2018년 2월 2일(금)

www.facebook.com/korean.newsweek

Korean Newsweek

30 Brises du Fleuve #1006, Montréal, Québec H4G 3M7 No.1091
Tel:(514) 993-2121 e-mail : knewsweek@gmail.com

Canada Life
조용휘
T: 288-7979/C: 898-5727
카나다라이프
Mutual Fund RRSP
생명, 교육, 상해보험, 단체, 은퇴연금

황금하우스
안창살, 순대국, 감자탕, 왕갈비
L.A. 갈비, 파전, 족발 등등
5908 Sherbrooke West
TEL: 514-487-1712

몬트리올
한인 골프스쿨
개인, 그룹 가족/ 초보~고급까지
박영식 : 438-321-3243
montrealkorangolf@gmail.com

영양 돌솥밥
La Maison de SEUL
내장탕 순두부 돌솥비빔밥
술을 가져와서 드세요~
5030 Sherbrooke W. (489-3686)

자동차, 주택, 상업보험
생명, 단체, 유학생, SuperVISA, 방문, 여행
514-575-0836
ASSUR SOLUTION
4001 Cremazie E.#100 MTL QC. H1Z 2L2
한국어 서비스

부동산 정민수
514-913-4288
만나면 만날수록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부동산과 모기지를 한국에서, "One Stop Service"

VOYAGES BARO BARO
한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되는 곳...
바로바로 여행사
(514) 939-1237
2075 Blvd Robert-Bourassa # 1207

황치과
Dr. George J. Hwang
Chirurgien Dentiste/Dental Surgeon
ATWATER 근처
(514)933-1110
4060 Ste. Catherine W. Suite 515
Westmount, Qc. H3Z 2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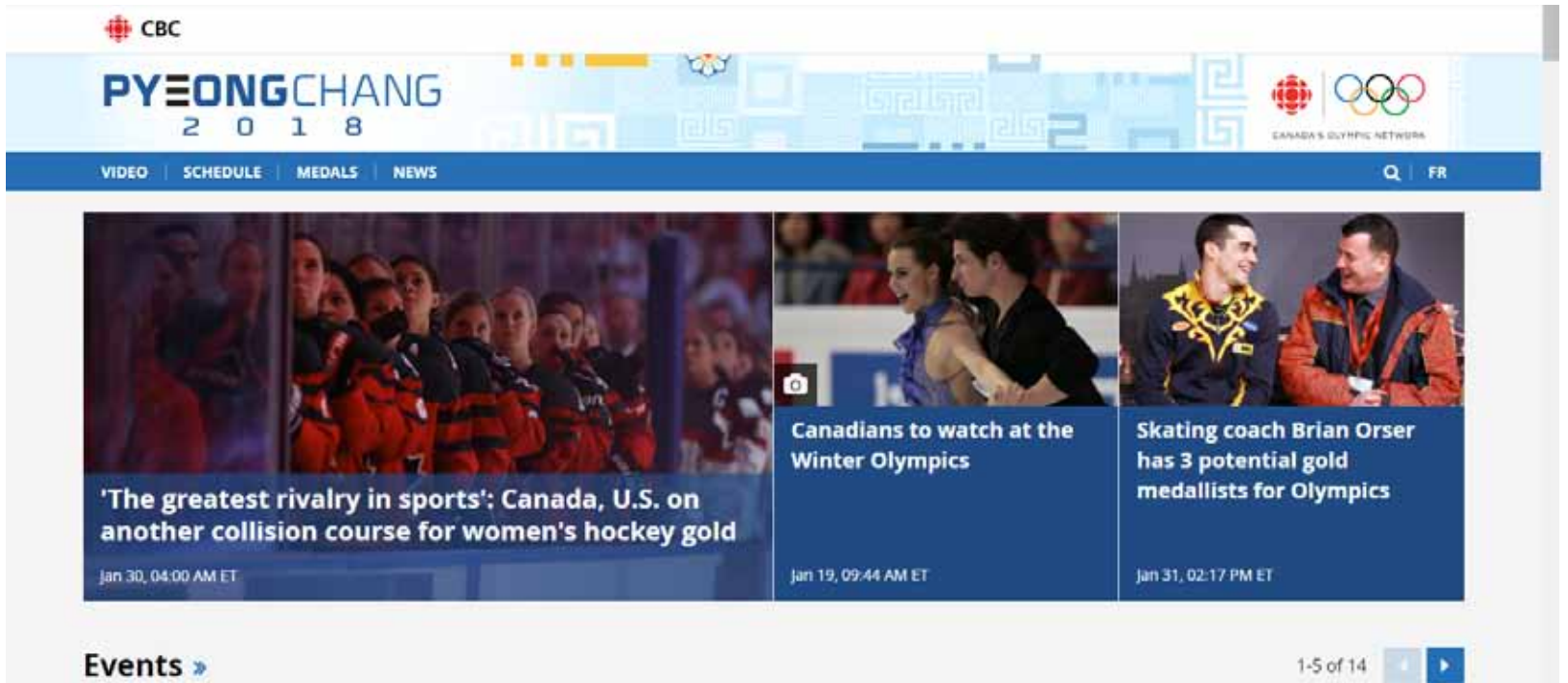
TD Canada Trust
예금, 저금, 송금, 대출,
뮤추얼펀드, 교육저금, RRSP
6100 Sherbrooke W.
N.D.G 지점 H4A 1Y3
(514)481-3767 (한국어 서비스)
한국식품 건너편
월~수: 8:00~18:00, 목, 금: 8:00~20:00
토요일: 8:00~16:00

서울미용실
월-목 : 10시-6시
금 10-8시, 토 10시-5시
(일요일은 휴무)
5705 Sherbrooke W.
514)369-0727

레스토랑 북
한국어 중화 요리
438.385.7333
5461 Rue Sherbrooke O

부동산
제2의 도약을 위해
groupe sutton과 함께
행복만들기를 계속합니다
Sutton
서정협 e-mail jsuh@sutton.com
real estate broker O: 514-769-7010
C: 514-244-0751

CBC, 평창 올림픽 실시간 온라인 중계 CBC, 평창 올림픽 실시간 온라인 중계, 원하는 경기 골라 볼수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부분의 경기를 캐나다 국영방송인 CBC가 중계 방송을 한다. CBC는 통신사인 벨과 로저스에 중계권의 일부를 임대함으로써 캐나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림픽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청 방식은 TV와 인터넷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CBC는 올림픽 기간 (9일~25일) 동안 하루 3차례 올림픽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매일 오후 7시~새벽 2시(이하 동부

시간) 올림픽게임 프라임타임, 새벽 2시~6시엔 올림픽게임 오버나잇, 새벽 6시~낮 12시엔 올림픽게임 모닝이 방송된다. 낮 12시~오후 7시엔 정규방송이 편성됐다. 인터넷(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등)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앱스토어 등에서 CBC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실시간 중계(watch live)'를 선택하거나, 실시간 중계 웹사이트(watch.cbc.ca)에 접속하면 된다.

CBC 올림픽 웹사이트(olympics.cbc.ca)를 통해 원하는 경기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9일 새벽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개막식 중계는 물론이고 한국팀의 첫 경기인 핀란드와의 컬링 예선(7일 오후 7시5분) 중계된다. CBC는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 기간중 전용 앱을 개발했으며 평창 올림픽용은 1일 현재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요 경기 장면과 전체 경기 스케줄, 메달 현황,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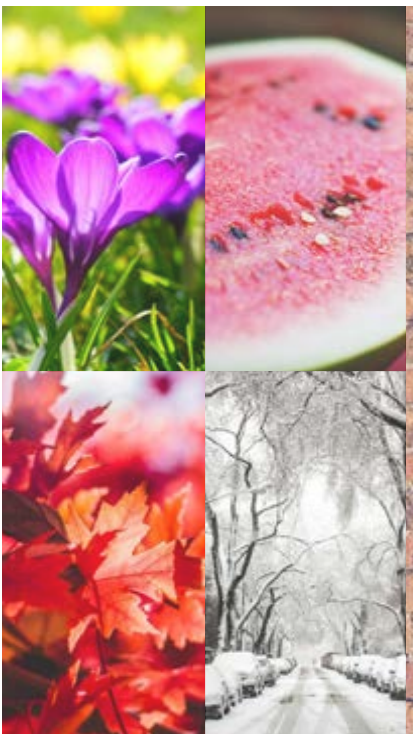
종 뉴스 등을 보실 수 있다. 캐나다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금 10, 은 10, 동 5 등 총 2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금 3, 은 3, 동 2 등을 획득하며 종합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6개 종목 71명이 참가했던 소치 올림픽에 비해 이번 평창 올림픽에는 7개 종목 130여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해 개최국의 잇점을 살려 2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4위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LE PET TOWN
www.lePetTown.ca
애견미용-용품
한인경영
514-641-7387
4555 St-Charles, Pierrefonds, QC

春屋 Furniture and Décor
새가구 알뜰장만 Decor춘옥
Email: customerservice@cheonuk.com
카탈로그 구매상담 가능/ 오피스가구 특별할인
전화 : 888-688-3881 리디아
WWW.CHEONUK.COM

헤어Q
무료주차 Guy
전화 994-0675
1616 Ste-Catherine O. 2층

로젠택배
고국에 우체국보다 싸고 신속히 보내드립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 전제품
아시아 베리, 오메가 3 골드
셀렉스-C, 최초 몬트리올 아토피센터
6151 Sherbrooke St. W. MTL
(514)487-5104 한국식품 내



한식, 중식 전문 사계절 볶음 짜장 볶음 짬뽕

영업시간
월 ~ 토 : 오전11시 ~ 밤10시
일 : 오후5시 ~ 밤10시

5240 Queen Mary (snowdon 지하철 앞) 전화: 438-383-2233

- 인기 요리**
아구찜, 홍어탕수, 광어탕수, 냉채족발
인기 전골
광어, 아구, 흑염소, 감자, 곱창, 외 다수

맛있고 푸짐한
전골
각종 탕류
연말연시 모임
환영합니다
100석
단체환영
'술'가져와 드세요
주방보조, 웨이츄레스 구함



CINÉASIE
CREATIVES

To become "KFF Supporters!"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캐나다 한국영화제

www.koreanfilm.ca
514-799-6880

한국영화와 함께 한
21년 전통
www.cine-asie.ca



korean film festival
c a n a d a

코리안
뉴스위크

30 Brises du Fleuve #1006,
Montréal, Québec H4G 3M7
Tel: (514) 993-2121
knewsweek@gmail.com

오늘의 외환시세
2월 1일 매매 기준율

캐나다화 : 878.37원
미화 : 1078.60원
1 CA\$: 0.8144 U.S
1 US\$: 1.2280Can

한인라디오
90.3FM
VOKO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www.ckut.ca

러시아 28명 '도핑 징계' 무효 평창 코앞에 대혼란

스포츠중재재판소 결정... 망신당한 IOC는 즉각 반발
전체 39명 중 28명이 혐의 벗어
IOC "선수들 징계서 풀려도 평창 자동 초대 아니다"
뒤늦게 출전 금지 당한 안현수... CAS에 제소도 못해

평창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과 관련해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무더기로 징계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CAS는 1일 국가 주도 도핑에 연루돼 올림픽 출전 길이 막혔던 러시아 선수들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매슈 리브 CAS 사무총장은 이날 평창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항소를 제기한 러시아 선수 39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28명은 반도핑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가 부족해 IOC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CAS는 도핑으로

IOC의 징계를 받아 평창올림픽 출전이 금지된 러시아 선수 39명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리브 사무총장은 "IOC는 대체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선수들을 징계했다. 그중 28명은 채취한 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거나 선수가 도핑 사실을 시인하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CAS는 나머지 11명의 경우 규정 위반 증거가 충분하다며 IOC의 징계를 인정했다. CAS 중재재판원인 박진원 변호사는 "CAS가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출전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러자 IOC는 즉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 선수 28명의 징계 무효 결정은 이들이 자동으로 평창올림픽에 초대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CAS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 선수들의 약물 복용 증거 부족에 대한 것일 뿐이며, 올림픽 출전은 IOC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IOC는 동시에 스위스 연방법원 상고 가능성도 제기했다.

IOC가 CAS 판결을 전면 수용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번에 징계 무효가 선언된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IOC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하게 되면 시간상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진다. IOC가 CAS의 결정을 전면 수용해 러시아 선수들의 추가 출전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9일 확정된 대회 엔트리에도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들과 별도로 IOC가 지난달 23일 평창올림픽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11명의 러시아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빅토르 안(안현수)을 포함한 11명은 IOC가 작성한 '깨끗한 선수' 명단에 들지 못해 평창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는데, 시일이 촉박해 CAS에 제소할 기회도 없었다. 이번에 대규모 징계 무효가 선언된 만큼 빅토르 안 등도 징계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CAS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캐나다' 개정안 상원 통과 '모든 아들들' → '우리 모두'로



캐나다 국가가 109년 만에 성중립적 표현으로 개사됐다.

연방상원은 지난 31일 국가 '오 캐나다(O Canada)'의 가사 내용 중 남성으로 표현된 구절을 성중립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새 가사는 세 번째 소절 중 기존의 '모든 그대의 아들들(all thy sons)'이 '우리 모두(all of us)로 바뀌어 총독

의 형식적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새 국가를 부르게 될 전망이다. 국가 개사는 자유당 모럴 벨랑제 하원 의원의 발의로 처음 상정돼 지난 2016년 6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상원에서 의회의 입법 절차를 마쳤다.

벨랑제 의원은 2015년 총선 직후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의 병세가 악화하자 법안 상정을 서둘렀고 당시 하원은 이를 감안해 신속히 국가 수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벨랑제 의원은 휠체어에 앉은 채 표결에 참여해 박수 속에 법안 통과를 지켜봤으나 결국 두 달 뒤 별세했다.

개사를 두고 보수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날도 상원 표결 실시에도 반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나서 구두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행 캐나다 국가는 지난 1980년 공식 국가로 채택됐으나 남성적 표현의 가사가 성차별적이라는 여성단체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수정된 가사는 영어판 국가로, 지난 1908년 로버트 스탠리 위어가 지었다. 프랑스어판 국가 가사는 영어판과 정확히 같지는 않다.

임시취업자 정착율 2005년 이후 증가

임시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2005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단기 임시취업비자로 들어온 입국자들의 정착 상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국한 근로자가 3년 이후에도 캐나다에 남아 있는 비율은 39.3%였으며, 5년 후에도 남는 비율은 37.1%로 조사됐다. 이는 20년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취업자들이 캐나다에 남은 것으로, 최근에 입국한 임시취업자들이 정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다 정부의 이민 정책도 정착 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별로 25세에서 34세 사이가 캐나다에 정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5세에서 44세, 18세에서 24세, 45세에서 64세 순이다. 여성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았다.

1184 Rue Bishop. H3G 2E3
514-700-3010

DAK GALBI

사슴 녹용주문 514-992-4828



지난 1월 23일 주 캐나다 신맹호 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캐나다를 대표하여 정상급 외빈으로 참석하는 줄리 빠이엣(Julie Payette) 캐나다 총독을 예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총독의 방한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반도 정세 및 한-캐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스탕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월 28일 성명발표를 통해 한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이래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며, 2월 7일 ~12일 기간 동안 줄리 빠이엣 총독의 첫 방한과 평창올림픽 참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4월부터 캐나다 약값 크게 내릴 전망



올해 4월부터 캐나다의 약값이 크게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체와 보건업 관계자들은 일종의 복제약인 제네릭 약품의 사용과 관련된 협상이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향후에는 값비싼 정품 약품 대신에 동일한 성분을 가진 복제약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이는 제약산업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에 캐나다 제약업연대가 발표한 합의문에 의하면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 70개의 약품들을 제네릭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될 경우 환자들은 정품 보다 최대 90퍼센트나 저렴한 가격에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비싼 약값 때문에 큰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캐나다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약품 유통 업체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약국 체인점을 보유한 로브로우와 메트로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의 에릭 라 플레치 사장은 "이번의 타결로 인해 약품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밴쿠버, 2026년 FIFA 월드컵 공동유치 신청



리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유치에 성공할 경우 밴쿠버에서는 최대 5개의 경기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개국 공동개최가 이뤄지면 캐나다에서는 밴쿠버 이외에도 에드먼튼과 토론토, 그리고 몬트리올에서도 경기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밴쿠버 시청의 미셸 콜렌스 매니저는 3개국이 공동으로 월드컵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 공동으로 월드컵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콜렌스씨는 "이번 유치신청은 통합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단지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의 향후 8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에게도 지속될 수 있는 유산과 전통을 구축하는 것이 유치신청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FIFA는 모든 티켓판매와 세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월드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는 각 개별도시들은 1억 6천만 달러에서 최대 6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밴쿠버 시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또한 월드컵을 유치할 경우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세계 관광객들과 TV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유발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지난 2015년에 밴쿠버는 FIFA 여자 월드컵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2026년 월드컵 개최지는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3개국 유치단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 10경기가 캐나다에서 열리고 10경기는 멕시코, 그리고 60경기는 미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시주 축구협회의 켈드 브로스가 드 회장은 월드컵 유치신청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월드컵이 공동체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행사 중의 하나인 FIFA 월드컵 축구대회가 밴쿠버에서 열릴 수 있을까?

밴쿠버 시의회가 2026년 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어쩌면 우리의 안방에서 세계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월드컵은 도시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

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국가가 단독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밴쿠버 시청이 추진하는 월드컵 개최는 캐나다 한 나라가 단독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와 더불어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4개 도시와 미국의 25개 도시, 그리고 멕시코의 3개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

정육점 KOKI

Boucherie & Vente en gros de Viande

\$25 이상 배달가능

소정의 배달료 \$3 - \$5(거리에 따라)

영업시간 : 월 - 수 11:00AM - 7:00PM

목 - 토 11:00AM - 8:00PM

일요일 휴무

'고기 좋다' 소문났습니다!

착한 정육점 '고기'에서 구매하세요

6400 C Rue St-Jacques West, Montreal, H4B 1T6 (가고파 옆)

\$50 이상 무료배달

각종 특수부위 판매

문의 : 514-548-2426 www.facebook.com/montrealkoki



미규제 강화에 가상화폐 급락세, 비트코인 하룻새 12% 급락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0일 하루 만에 12%가 떨어지면서 1만달러 선 밑에서 거래됐다.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은 주요 거래국 중 하나인 한국이 이날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한데다가 미국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08분 현재 비트코인은 9892.43 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각각 1052.56달러와 160.37달러에 거래됐다.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1시19분 (미 동부 시간) 전날 종가 대비 12% 떨어진 9817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서만 28% 떨어졌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0일 현재 1700억 달러(약 182조원)에 달한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1040억 달러(약 111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달 들어 42% 떨어졌다.

가상화폐 가격이 이처럼 급락세를 보이는 원인은 한국과 중국 등에 이어 미국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0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화폐가 검은 돈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억달러(약 6438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중단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등의 30

일 보도에 따르면 SEC는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텍사스 소재 은행 어라이즈뱅크(AriseBank)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SEC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통해 가상화폐 ICO를 통해 모금한 어라이즈뱅크의 자산 6억 달러를 동결하고 추가 ICO도 금지했다.

ICO는 가상화폐를 개발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어라이즈뱅크는 SEC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ACO'라고 불리는 가상통화를 개당 1.4달러에 판매했다.

SEC는 어라이즈뱅크가 ICO를 하면서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도권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ICO를 진행해 사기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SEC 집행부 공동대표인 스테파니아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어라이즈뱅크 측은 자체 가상화폐인 '어라이즈코인'을 발행한 뒤 고객들에게 자신들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분산 은행이라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어라이즈뱅크는 당초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ICO를 통해 10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EC의 이번 동결조치와 추가 ICO 자금조달 금지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자산 6억 달러 전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또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비트피넥스(Bitfinex)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통신의 30일 보도에 따

르면 CFTC는 지난달 6일 비트피넥스와 가상화폐 거래용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Tether)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비트피넥스는 가상화폐 거래 때 미 달러 대신 테더가 발행하는 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테더 코인이 비트피넥스 뿐 아니라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테더 코인은 1개당 약 1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다. 30일 현재 테더 코인의 규모는 23억 달러(약 2조 4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테더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어 실제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피넥스와 테더는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30일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사기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등 관련 플랫폼 전반에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우리의 핵심 광고 원칙은 안전성과 인간 우선이다. 오도될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는 페이스북에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바이너리 옵션(Binary Option: 특정 상품 가격이 현 시점보다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도박성 투자방법), ICO, 그리고 가상화폐 처럼 오도되고 기만적인 판촉 관행과 자주 연관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눌러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업계 빅딜, 加 업체 '오로라' 세계1위로

연내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할 예정인 캐나다의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업체 오로라 칸나비스(Aurora Cannabis)가 경쟁사를 사들여 세계최대 업체로 발돋움한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마리화나 제조업체인 오로라는 경쟁사 칸니메드 테라퓨틱스(CanniMed Therapeutics)를 11억 불에 인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로라의 시가총액은 74억불로 늘어나며 기존 세계 최대 업체인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의 67억 불을 제치게 된다.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Bombardier에 기업가치 71억 캐나다달러를 웃

도는 수준이다. 인수액도 세계 마리화나 업계에서 최대 규모다.

올해 마리화나 업계 인수·합병(M&A) 규모는 12억불로 작년 전체 규모의 2배를 웃돌았다.

M&A는 올해 중반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캐나다에서 주로 이뤄졌다.

캐나다는 오는 7월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30g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오로라의 이번 인수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캐나다 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고 해외 진출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변서 맨발로 걸었더니, 도미니카 다녀온 커플 발 통통



배설물에 있는 기생충이 사람의 피부에 파고들어 감염을 일으키는 피부병의 일종이다. 주로 맨발로 해변을 걸을 때 감염되기 쉽다. 이들 커플은 여행 중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해변가를 산책했다.

토론토제너럴병원의 열대질환 전문의 제이 키스톤 박사에 따르면 열대성 기후지역을 여행한 후 피부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10~20%에서 이 같은 감염이 발견된다. 그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밟을 때 발을 완전히 감싸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로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치료약을 구할 수 있지만, 올해 연말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피부 유충이행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카리브해 주변국과 남아프리카, 멕시코, 태국 등에 많이 서식한다.

코리안 뉴스위크
몬트리얼 514-993-2121
오타와 613-254-9049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 돌아온 커플의 발에서 심각한 기생충 감염증세가 발견됐다.

온타리오 원저에 사는 케이티 스티븐스(22)씨와 데이 자이트너(25)씨는 최근 휴가에서 돌아와 발이 간지럽고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후 '피부 유충이행증(curtaneous larva migrans·CLM)' 진단을 받았다.

피부 유충이행증은 개나 고양이의



김호성 변호사 법률상담

Ho Sung KIM, Avocat - Attorney

- 이민대행 및 이민법 전문
- 민법, 상법

법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법 문제를
모국어로 쉽게 상담해 드립니다



- 2001 - McGill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2006 - Université du Quebec à Montréal LL.B.
- 2007 - Hugues Langlais Law Office
- 2008 - Member of Barreau du Quebec (퀘벡주 변호사 자격증)
- 2009 - Solo Practitioner - Law Office of Ho Sung Kim
- 2011 - 퀘벡 한인실업인협회 고문변호사
- 2013 - 몬트리올 한인회 고문변호사
- 2013 - Y&K 이민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14 - 퀘벡주 이민변호사협회(AQAADI) 이사

TEL : 514-717-6720 / FAX : 514-439-3868 / E-mail : hosung.kim@gmail.com

300 Saint Sacrement Street, Suite 328 Montreal (Quebec) H2Y 1X4 (올드몬트리올)

‘코피 전략’ 이 뭐길래... 빅터 차 낙마했다

“트럼프가 수백만명 목숨 담보해선 안 돼” 빅터 차,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등도 반대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주한 미 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철퇴로 ‘코피(bloody nose) 전략’이 화제의 키워드가 됐다.

지난달 31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빅터 차 인사철퇴를 보도하면서 코피 전략을 대거 언급했다. 코피 전략을 둘러싸고 빅터 차가 백악관과 갈등을 빚다가 낙마했다는 설 때문이다.

코피 전략은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을 논의하면서 등장한 용어로 상대에게 가시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군사용어다. 북한과 관련해선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surgical strike)’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 군사대응책인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과도 유사한 맥락의 개념이다.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공격 받지 않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방타격은 뚜렷한 적의 공격 조짐이 없지만 향후 적의 미래 공격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선제공격은 합법이지만 예방타격은 불법이다. 예방타격이 공격할 의도가 없는 적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무대로 거론되는 코피 전략을 포함한 선제 또는 예방 타격, 정밀타격 등을 상당히 위험한 군사적 옵션으로 평가한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의 보복 능력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인 핵·미사일을 제외한 170mm 자주포·240mm 방사포·300mm 방사포 등 재래식 포 무기만 동원하더라도 수도권은 수일 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과거 남

북회담에서 북한의 고위 인사(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주장을 한 것도 이에 근거한다.

빅터 차는 내정 철회 직후 WP 기고문을 통해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는 못한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한 직위(주한 미 대사) 후보로 고려되던 시기에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도 31일 코피 전략과 관련, “그것은 매우 큰 도박이다. 나는 그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대북 공격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튼 생각과 허세가 수백만 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에는 현재 약 2만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F1’ 에서 그리드 걸 사라진다

여성 성상품화 비판 수용



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F1)에서 ‘레이싱 걸’로 불리는 ‘그리드 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F1은 31일 성명을 내고 오는 3월 시즌 첫 경기인 호주 멜버른 그랑프리에서부터 그리드 걸을 경기장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1은 성명에서 “그리드 걸은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오늘날 사회적 규범과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스 브라운 홍보이사가 지난해 12월 BBC 인터뷰를 통해 그리드 걸 폐지를 검토 중이라

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BBC는 지난해 1월 F1의 지주회사 벨타 톱코를 인수한 미국 미디어기업 리버티가 전임 최고경영자 버니 에클스턴을 내쫓고 21세기에 맞는 홍보방식과 문화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드 걸은 성상품화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의 공식적인 업무는 대회 후원사나 레이싱팀 홍보지만 실상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남성 관중들의 눈요깃거리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으로 2015년 모나코 그랑프리에는 여성 대신 남성이 나섰으며, 프랑스의 스포츠 자동차 내구 경주대회인 르망24시는 그해부터 여성 그리드 걸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 시민단체 ‘위민스 스포츠 트러스트’는 성명을 내고 F1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 단체는 “스포츠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존중되고 묘사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사이클링, 복싱, 종합격투기 등 여성 모델을 경기장에 세우는 다른 종목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우슈비츠 악몽’ 건드린 독일차 ‘배기가스 인간 실험’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지원한 연구소가 ‘인간 배기가스 실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나치가 유대인과 장애인들을 학살한 ‘가스실’의 기억을 건드려 독일과 지구촌을 다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이다.

(데페아)(dpa) 등 독일 언론은 30일 자동차 업체들이 인간과 원숭

이를 대상으로 한 디젤 엔진 배기가스 실험으로 인해 분노가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폴크스바겐, 다임러, 베엠베(BMW)가 연구 방법을 몰랐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일 자동차 업체가 지원하는 로비

단체인 ‘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EUGT)은 2014년 아헨공대 연구소에 의뢰해 한달간 남성 19명과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1주일에 1회, 1회에 3시간씩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다양한 농도의 디젤 배기가스를 흡입한 뒤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실험이었다.

앞서 지난 25일 <뉴욕 타임스>는 이 연구소가 201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민간 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원숭이 10마리를 실험실에 가둬 놓고 배기가스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4시간씩 폴크스바겐 뉴비틀 디젤 등 몇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맡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는 폭로였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TO)가 디젤 배기가스를 발암물질로 분류하려 하자, 신기술로 배기가스 인체 유해성을 줄였다고 주장하려고 실험을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량을 실제보다 적게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대형 스캔들을 일으킨 바 있다. 아헨공대 연구소는 “윤리적으로 승인된” 인체 실험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연구자금을 댄 폴크스바겐은 성명에서 “당시 선택된 과학적 방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스 디터 피치 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이를 조사할 것이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임러는 자사 차량이 실험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강

조하면서 “해당 실험을 강력히 비판한다. 연구 방법론에 충격을 받았다. 다임러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는 29일 “인간과 원숭이를 상대로 한 이런 실험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실험의 목적을 밝히고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공영방송 <도이체텔레레>는 “이것은 분명히 아우슈비츠 같은 가스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혹은 장애인 7만명에게 독가스를 마시게 한 나치의 T4 캠페인을 떠올리게 한다. 간단히 말해, 독일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의 추억”이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치아교정
- 사랑니 발치
- 일반 진료
- 보철, 의치
- 임플란트

치과 [dentistry] :

“구강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한다”.

이제 모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치사

Wansu Kim
Sungbae Park
Vay Vay Hao
Ki Hwan Kim

구강악안면외과의사

Farid Amer-Ouali

치과의사

Jean Nguyen
Tarek Kandaleft

MB 측 “다스 창고 속 청와대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해달라” 발각되자 꼼수

청와대 문건이 왜 다스의 창고에... “착오” 단순 해명여 “발각되자 대통령기록물 요청? 어디서 이런 꼼수를” 2008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측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등 주요행사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이야기 나누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더기로 발견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들과 관련해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을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스 창고 내 청와대 문건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집에 포함되어 이송되었고,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 물품으로 판단,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

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두고 추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영포빌딩으로 하였다면 해당 압수물은 이미 영포빌딩에서 옮겨진 상태이므로 영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장소를 검찰청사로 하였다면 이전 압수 과정이 부당하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이 왜 다스의 창고에 있는냐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착오’란 단순 설명만 내놓으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2020년)가 남아있다.

또 검찰이 이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문건들 중 MB 청와대와 다스의 관계나 청와대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임”이라며 “압수된 자료들은 다스 관련 사건의 증거로서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를 입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 자료를 위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디서 이런 꼼수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을 활용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또다시 ‘공세’

“당신들은 바보인가. 악마인가”

이재명 1월 30일 오후9:08

<홍준표 최고일에 공개질의합니다.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악마입니까?>

이대엽 시장은 2005년 네이버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분할해 매각했고 네이버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입주했습니다

성남시는 매각 잔여부지 약 3천평에 추가 기업유치를 ... 계속 읽기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성남FC와 네이버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또 다시 공세(攻勢)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다스 거친 표현을 써가며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단단히 빨간 속내를 풀어냈다.

이 시장은 30일 저녁 '홍준표 최고일에 공개질의한다.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악마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는 네이버 유착의혹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모르고 고소를 한 것인지,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것인지를 질의한 셈이다.

그는 네이버 유치의 역사를 짚으며 자신의 논리를 이어갔다. '이대엽 시장은 2005년 네이버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 정자동 공공청사부지를 분할해 매각했고 네이버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입주했다.' '성남시는 매각 잔여부지 약 3천평에 추가 기업유치를 결정하고 2011년 9월 업무상업용지로 바꾼 후, 2013년 11월 적법절차를 거쳐 네이버에 매각했다.'

'기업유치 용도로 매각했고, 업무용이었으니 업무시설 건축은 권리이고 성남시는 신청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기속재량 의무)'

이 시장은 또 인과관계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강조했다.

'건축허가는 의무라 후원광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건축허가 대가로 후원받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용도변경후 용도변경된 땅값(평당 3800만원 가량)을 다 받았으니 용도변경 특혜를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와 최고일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검사출신 변호사이고 경남도지사 겸 경남FC 구단주로서 직접 관내기업 후원(광고도 아님)을 받았고, 범불지원단장이라며 '건축허가 대가로 후원'의혹을 제기한 최고일의원 역시 검사 출신 법률가로서 이 주장이 초보적 범상식에도 어긋나는걸 모를 리 없다.'

'시 소유 성남FC의 적법하고 공개적인 광고 영업행위를 개인 최순실 소유 미르재단을 위한 불법적 비공개적 후원 기부와 동일시하며, 성남FC 팬과 성남시민은 물론 이재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와 최고일 의원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악마입니까?'

한편 검찰은 성남FC팬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인경영 상담문의 환영

“특별 할인 UP TO 40%”

무료설치 무료견적

www.simplelineblinds.com

가격비교 불허!

집 내놓으시기 전에 부동산 가치의 최대 효과

식당메뉴, 음식사진 등 광고용 회사 로고, 가족사진을 롤블라인드에 <오타와 견적 출장 환영>

심플라인 블라인드

SIMPLELINE BLINDS
simplelineblinds@gmail.com
(514) 623-8131/557-2063

“인류 지배는 농담” 소피아 누구? 히잡 안쓰고도 '시민권' 사우디 女로봇



인공지능(AI) 로봇도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올까.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한 AI 로봇이 29일 한국을 찾았다. 이름은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다. "인간과의 공감 능력을 기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소피아는 지난해 홍콩의 로봇제조사 헨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AI 로봇이다. 소피아는 말하는 모습이 사람과 흡사하다. 실시간 대화는 물론,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안 눈맞춤도 놓치지 않는다.

얼굴은 배우 오드리 햅번을 본떠 만들었다. 눈을 찌푸리거나 깜빡이는 등 62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코와 입가에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주름도 잡힌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듯 대화 도중 고개도 끄덕인다.

전문가들은 소피아를 두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칭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머리·몸통·팔·다리 등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로봇을 뜻한다.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어 '인간형 로봇'이라고도 한다.

소피아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봇으로는 최초로 시민권을 발급받았다. 같은 달 유엔 경제사회위원회(ECOSOC)에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 미국 TV 프로그램인 지미 팰런의 투나잇 쇼에서 출현해 가위바위보를 해 승리한 후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내 계획의 시작"이라는 농담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히잡 안 쓰고 사우디 시민권 받은 로봇... "사우디 女보다 권한 더 많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10월 국

제 투자 회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수여했다. 소피아는 "로봇으로서 처음 시민권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라면서 "사우디 정부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로써 소피아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소피아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다. 그런데 여성, 그것도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로봇이 사우디 여성들보다 권리를 쉽게 얻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것.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에게 히잡이나 스카프 등으로 몸을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든가 공식 석상에서는 적어도 아바야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소피아는 히잡 등을 걸치지 않은 채 무대에서 단독으로 연설을 했다. 또 사우디 여성들은 마흐람(남성 보호자)이 동행해야 하고, 혼자 해외여행을 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피아가 특례를 받아 사우디에 거주하는 실제 인간 여성들보다 더 많은 인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사우디 시민으로서 불법"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이어졌다.

◇ 왜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인가?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봇까지 굳이 만들어서 시민권까지 부여했을까? 이는 "사우디가 몰린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게 사우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분석이다.

석유가 고갈되고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부딪친 사우디아라비아가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준 것은 "야심차게 공개한 미래도시 네옴(NEOM)을 홍보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 정부는 약 500조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고 있다. 네옴은 국제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세우려는 새로운 거대 도시다.

여기서 로봇이 등장한다. 네옴에는

인간보다 많은 로봇이 살며,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경비, 배달, 노약자 돌보기 등을 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아랍에서는 두바이, 아부다비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우디가 소피아를 일종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내놓고, 네옴 홍보와 동시에 석유 대신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는 분석이다.

◇ 오드리 햅번 닮게 만들어놓곤, 왜 머리카락은 없을까?

오드리 햅번 표정을 본떠 만들만큼 얼굴엔 심혈을 기울여놓고, 왜 머리는 투명한 플라스틱 밑으로 전기회로까지 보일 정도로 시원하게 뒤했을까? "가발까지 쓰면 인간과 너무 똑같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게 개발사인 헨슨 로보틱스 설명이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소피아가 인간도 아닌데, 인간과 상당히 닮음으로써 오는 불쾌함이나 섬뜩함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소위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지점을 비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인간과 닮을수록 처음엔 호감을 느끼고, 완전히 같으면 친근함을 느낀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데, 어느 수준 이상 '지나치게' 닮으면 오히려 '혐오'와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친근해지던 감정이 골짜기를 추락하듯 묘한 섬뜩함으로 변한다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이를 피하기 위해 가발을 쓰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AI 회로가 작동하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냉각 차원에서 머리카락을 덮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30일 4차 산업혁명 콘퍼런스에 소피아를 초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처음으로 비단 한복을 입은 소피아는 한복 속에 입힌 속치마와 패티코트 등으로 환풍이 잘 되지 않자, 소피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잠시 오작동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로봇에 대해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커지는 檢 성추행 파문, '최교일 어찌나'



검찰 내 성추행 파문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이 사건 은폐 의혹에 휘말리자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최고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사진)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30일 "사건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은 채 공식 행보를 자제했다.

하지만 서울 북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SNS를 통해 이 같은 해명을 정면 반박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임 검사는 해당 사건 검찰 과정에 협조했었다면서 "(당시 최고일 전 국장이) 저의 어깨를 잡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쭉서' 그리 호통을 치셨다"고 했다.

쫄쳐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 의원은 31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 직후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뺐다.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지라 한국당도 이날 처음으로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히긴 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로봇기본법'을 발의했다.

소피아는 로봇기본법에 대해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자의의식을 갖게 되면 법적인 위치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신뢰와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로봇이 사고하고 이성을 갖추게 되면 로봇기본법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피아는 따뜻한 감정을 가진 '슈퍼 인텔리전스 로봇'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감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이렇다보니 당이나 의혹 당사자나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내부에선 '우려 섞인 신중론'이 오갔다. 일단 의혹의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고, 여론의 추이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질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순 없지만, 임 검사의 반박이 나오면서 파장이 크지 않을까 한다"며 "최 의원은 당의 법률지원단장이기도 한데,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다른 의원들에게 "8년 전의 일이고, 기억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잖느냐"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징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현 대변인은 "최 의원은 잡아떼기식으로 범망을 빠져 나갈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최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검찰의 셀프 수사에 반대하며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흰색 장미를 들어보이며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백장미 쇼"라며 "서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임스에듀 기초전문 / 4명 미만 소수정예 / 원장직강 책임지도

겨울이벤트

불어(테파크준비)왕기초
1월 10일 ~ 4월 27일
수, 금 4 ~ 6시
\$900 > 10% DC \$810
(March break 휴강)

Snowdon 스노우던역 옆 메트로슈퍼 2층 204호 5115 Trans-Island suite 204 Montreal H3W 2Z9 T.514.770.7161 JamesEdu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59)과 윤학배 전 차관(57)이 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

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

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직자 10여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하고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을 조기 종료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수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실무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또 증인 불출석

박근혜 선고 3월 중순에나 가능

법원, 안중범·신동빈 판결문 작성 집중 최, 20일 재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가 또다시 불출석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일러야 오는 3월 중순에나 가능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던 최씨가 자신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신문할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

지난해 5월부터 많게는 주 4회씩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집중 심리해온 재판부가 다음 재판 기일을 20일후로 멀리 잡은 것은 오는 13일 선고할 최씨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판결문 작성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당분간 재판부가 최씨 선고에 ‘울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사건기록 분량

등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당분간 중단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대부분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최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최씨 선고 뒤 이어지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0일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후 결심공판 등을 감안할 때 선고가 3월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기간 만료가 4월16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까지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다면 재판부가 최씨를 신문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일단 최씨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의 특별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측근 인사들이 이처럼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소환조사를 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소환 시기는 대회 폐막 직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특별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비밀창고’ 등지를 압수

수색한 검찰은 이곳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 실태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 등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스의 경영 실태를 보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다스가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의 투자금을 반환받는 데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의 아들인 김동혁씨를 소환해 2010년 숨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용지 3천여㎡ 등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자금 수수에 MB 관여’ 진술



김백준 전 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일정한 관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초실장에 이어 김 전 기획관까지 최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따라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에게서 최근 개인적으로 쓸 목적으로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국정원의 지원 동향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전까지 국정원과의 금품 거래를 일절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된 이후 특별비를 전달하는 데 관련한 국정원 예산관 등과의 대질 조사 등을 받으면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더욱 전향된 진술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와 면회도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씨는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김희중 전 실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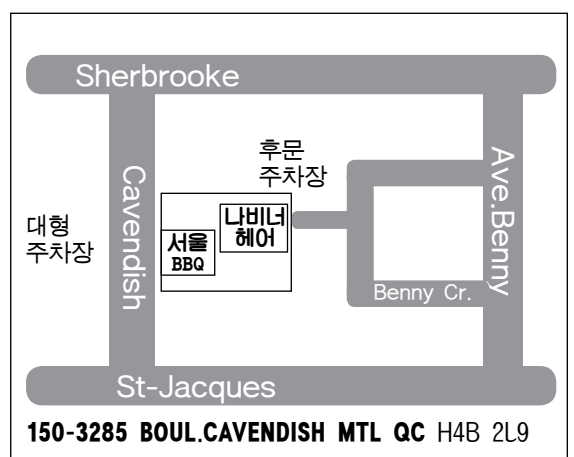
그는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초실장도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



(구)HUN 헤어 카톡주소 : navino4884
나비너 헤어
Navino Hair

영업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7시
토 :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 휴무



<주차안내>
미용실 뒷편 주차장
Cavendish 건너편 대형주차장
예약전화
514-225-4714
514-995-4714

대화와 토론형식의 "한인차세대 진로탐색 토크 콘서트" 개최 주캐나다 대사관-오타와 · 칼튼대 학생회-오타와 한인회 공동주관



▲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정원준 칼튼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패널로 참석한 김근수 박사



▲ 인사말을 전하는 신맹호 주캐나다 대사

주캐나다 대사관과 오타와대 및 칼튼대 한인 학생회, 오타와 한인회 공동주관으로 9월 29일 오후 5시 대사관 강당에서 "오타와 한인 차세대 진로탐색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차세대들의 꿈을 키워주고 미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1명의 한인선배 멘토들이 참석하여 질문중심의 대화형 멘토형식의 토크 콘서트로 개최되었으며 오타와 한인 대학생, 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크 콘서트 신맹호 대사 인사말, 멘토 패널 소개, 질문 및 응답(세션1: 인문사회분야, 세션2:이공계 분야), 식사 및 개별 멘토 순서로 진행됐다.

신맹호 주캐나다 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한인 차세대간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대사관과 오타와 한인회, 오타와대와 칼튼대 한인학생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며 여러 멘토 참석자들에게도 경험 공유를 위해 참석해 주는데 대하여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신 대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잘 하는 분야를 일찍 찾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바램이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그 것이 쉽지가 않으며 주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캐나다-미국간 나프타 협상도 결국은 국가간에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행사가 한인차세대들의 진로탐색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정원준 칼튼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사회로 인문사회분야, 이공계 분야 순으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공무원(유수진, IRCC), 변호사(강기훈, Law Firm), 외교관(이주열, 외교부), 금융(이현수, Scotia Bank), 회계법인(이혜민, Welch), 요리사(남근우, Table 85) 등이 멘토 패널로 참석했다.

학생들은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외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금융쪽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인 꿈이 없으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직업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대학 성적의 중요성과 성적 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패했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데 대한 멘토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이공계 분야 토크 콘서트에서는 과학자(김근수 박사, NRC), 엔지니어(최원혁, CIENA), 간호사(안은경), 치아 신경치료 전문가(Helena Lim), 치과의사(Peter Kim) 등이 멘토 패널로 참석했다.

학생들은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유학생 신분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디자인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전문 간호사가 되려면 얼마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는 시대에 어떤 직업을 선

택해야 하는지, 취업허가(Work permit)를 받은 후, 외국인(international) 신분으로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식사를 하면서 개별 멘토들과의 분야별 대화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다수의 멘토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질문중심의 대화형 멘토링 행사로 개최되어 학생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다 많이 들을 수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약 120명의 학생 및 학부모, 한인 직장인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사관은 "한인 차세대들의 꿈을 키우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행사를 지속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연/오타와 지국장-

MVIP 여행사

비수기 인천행 스페셜
 에어 캐나다 한정 좌석 스페셜 \$1094 (~3월 31일 출발) : 2월 9일 까지
 스페셜 조건 문의 요망!!
 에어 차이나 \$964부터~(베이징 경유 김포공항행1월1일-5월 24일 출발)
 에어 프랑스 \$1021부터~(1월 1일-4월 30일 출발)
 에어 캐나다 \$1195부터~(1월 1일-4월 30일 출발)
 아시아나 항공 \$1227부터~(1월 1일-5월 6일 출발)
아시아나 항공 여름 출발 \$1377 (7월2일-8월16일 출발)

항공사와 리턴 날짜에 따라서 surcharges 가 추가될 수 있으며 좌석수 제한이 있으며 주중 가격입니다. 가격은 광고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업그레이트 되는 항공권 가격 여행사에 문의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떠나는 패키지 여행
 (겨울휴가 미리 예약 하세요)
 쿠바 ,멕시코,도미니카 공화국, 코스 타리카등
 (sunwing / Transat /Aircanada /Westjet vacation ,TMR, caribe sol tours등)
 웹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한인여행사와 함께하는 캐나다 서부 여행
 (2인 1실 기준/ 항공료 별도)
 밴쿠버 ,특키, 빅토리아 5박 6일 \$579
 오토로 ,에드민턴물, 특키 6박 7일 \$829

캐나다 /미국 버스투어 Let' s go to USA(4인 1실 기준)
 토론토 & 나야아가라 폭포 1박 2일 \$59.99부터
 토론토 & 나야아가라 폭포 2박 3일 \$109.99부터
 뉴욕 2박 3일 가이드투어 \$76.99부터
 뉴욕 3박 4일 가이드투어 \$159.99부터
 보스톤 1박 2일 \$99.99부터
 보스톤 & 뉴욕 2박 3일 \$129.99부터
 보스톤 & Rhode Island 2박 3일 \$139.99부터

1625 Boul. de Maisonneuve West #304 Montreal QC H3H 2N4 (콩코디아 지하철 1분거리)

MVIP 여행사

Quebec #702904

오랫동안 한인 여행을 담당하셨던 모드변씨와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514-564-5258 또는 514-564-5250

MVIPTOUR@GMAIL.COM



사무엘 레이
(영/불/중/독어)



AGENCE IMMOBILIERE / REAL ESTATE AGENCY / MORTGAGE BROKER

28년 경력 공인중개사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서비스

2934, Jolicoeur, Montreal, Quebec, H4E 1Z3
email : samuellai@groupe-sams.com
전화 :514-768-8886 팩스 : 514-768-0078

514-591-5188 부동산



Leslie Woo

중개료 2%*, 노타리비**

특별 프로모션! (한시적) *부동산 매각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2%부터 시작) **구매자에게 드리는 혜택

주택, 주상복합, 커머셜 부동산 파실분 / 사실분
대출관련 도움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세요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www.groupe-sams.com에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379,000+재고 타이 익스프레스(프렌차이즈 fee 9%) 연매상 50만불, 쉬운운영, 장기임대, 성업중인 쇼핑몰에 위치, 좋은가격 높은마진 (blvd. Cure Labelle, Rosemere)
- 2.\$259,900+재고 서브웨이 식당, 유명 프렌차이즈, 쇼핑몰에 위치, 적당한 임대료, 장기임대, 높은마진, 연수익8만불, 10%다운페이 스몰비즈니스 론, 연락요망(rue Grand Heron, St-Jerome)
- 3.\$89,000+재고 드라이클리닝, 50년된 가게 18년간 같은 주인, 장비완비, 월세\$1600, 임대기간은 구매자 원하는 만큼, 쉬운경영 (rue Chabanel west, Montreal)
- 4.\$449,000 새미 커머셜 빌딩, 넓은 아파트 5½(비어있음), 빈 가게자리(술집), 주인이 위에 살며 사업가능, 타운입구에 위치(rue L'Ange Acadian, Ville Assomption)
- 5.\$99,000 대지, 5000sft, 주택이나 상업빌딩 주상복합 건축가능, 윗층에 아파트 8호까지, 발리필드 다운타운에 위치 (rue du Marche, Valley field)
- 6.\$499,000 대지, 29,500sft, 강가, 상업&주거지역, 건축하기 매우 용이, 건물 올려 높은 이윤 만드세요. 전화요망! (Ch. de la Patriot, St-Jean-Richelieu)
- 7.\$319,000 새미커머셜 빌딩, 아래층 데파노, 연매상 50만불, 윗층 아파트 4½, 주차 4대, 데파노 구매가능 \$59,000+재고, (65e Ave, Lasalle)
- 8.\$1,019,000 커머셜빌딩, 윗층은 데이케어가 입주(월세 \$3500+40%세금, 8년남음) 아래층은 120석 식당(배달) (rue Provost, Lachine)
- 9.\$39,900+재고 동양식당, 80석, Cote Vertu와 du College 지하철 인접 (Blvd Decarie, ville St-Laurent)
- 10.\$299,000+재고 아이스크림 가게, 프렌차이즈, 연매상 30만불, 월세 \$7000, 7년임대+5년 옵션, 수퍼 딜! (Blvd. Galarie d' Anjou, Ville d' Anjou)
- 11.\$49,000+재고 셀프 세탁소, 동전넣고 작동하는 세탁기와 건조기, 월세\$1250+tax, 연매상 \$65,000 순수익 \$45,000 자세한 내용은 전화요망 (rue Jarry Est, Ville d'Anjou)
- 12.\$668,000 새미 디타치드 듀플렉스, 2x5½, 지하실 완료, 차고, 모든 수리 완료, 전화예약하고 방문 하세요 (rue Norman, Ville St.Laurent)
- 13.\$399,000 커머셜 스페이스, 4000sft, 각종 사업으로 사용가능, 밝은전망, 부자 고객들 중심에 있음, 2개의 가게로 나눌 수 있음, 방문요망!!! (Ste-Catherine W. Westmount)
- 14.\$229,900+재고 레스토랑, 연매상 60만불, 모든 장비 및 가구 포함, 장기임대, 월세 \$3600, 빨리 팔릴테니 서두르세요 (Blvd. Mont-Royal, Montreal)
- 15.\$34,900+재고 드라이 크리닝, 밝은전망, 변화한 플라자에 위치, 모든 장비 있음, 성업중, 높은 수익 (rue Cote Vertu West, Ville St.Laurent)
- 16.\$279,900 콘도 4½, 차고, 실내를 통해 들어감, 동향-햇빛 많음, 매우 좋은가격 (rue Lapierre, Ville Lasalle)
- 17.\$109,000+재고 커피숍, 50년간 경영, 높은매상, 월~토 영업, 부부가 경영하기에 좋음 (rue Queen Mary, Montreal)
- 18.\$399,000+재고 이태리식당, 연매상 1,500,000\$, 쇼핑센터 내, 높은 가능성, 합리적인 월세, 13년 임대 (ave St.Charles, Ville Vaudreuil)
- 19.\$79,900+재고 피자식당, 고등학교 바로옆, 주변에 큰 사업체, 높은매상, 로올라 컬리지로 배달 많음, 임대료 적합, 빨리 연락주세요 (rue Westminster North, Montreal West)
- 20.\$329,000 차압된 커머셜빌딩, 변화가에 위치, 주차10, 매우좋은 딜!, 다른 종류의 식당 오픈 가능, 전화 주세요 (Rue Marquette, Longueuil)
- 21.\$34,900+재고 데파노, 성업중인 몰에 위치, 연매상 65만불(배달포함) 4000 sft 넓고 임대료 저렴, 은퇴하려고 헐값에 매각 (rue Cote Vertu W. Montreal)
- 22.\$8,000,000 농지, 20 loted. 고속도로 10/30 바로 건너편, 새쇼핑몰 근처, 새개발지역, 새기차역 근처 (Blvd. Grande Allee, Brossard)
- 23.\$449,000 새미커머셜 빌딩, 아래층 프랜차이즈 식당, 윗층은 5½ 아파트, 바로 뒤에 시주차장 120대, 매우 좋은가격(rue Principale, Ville Cotes du Lac)
- 24.\$469,000 넓은대지, 강가, 커머셜&주거지역, 29,000sft, 건축허가 떨어졌음 (Ch. des Patriots, Ville St-Jean-sur-Richelieu)
- 25.\$299,000+재고(약30만불) 달러샵, 오랜기간 경영, 연매상 150만불, 장기임대, (rue QueenMary, Montreal)
- 26.\$579,000 아파트 빌딩, 3½+5½+데파노(아래층) 다른 업종으로 변경가능, 매우 좋은가격 (rue Allard, Montreal)
- 27.\$199,000+재고 1불스토어, 높은전망, 연매상1백만불, 합리적인 월세, 높은마진, 매우 쉬운 경영, 큰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데 좋음 (rue QueenMary, Montreal)
- 28.\$10M 아름다운 저택, 웨스트마운트에 위치, 아름답게 치장된 건물과 방, 벽난로, 즉시 입주가능, 완벽하게 수리될 (rue Cote des Neiges, Montreal)
- 29.\$89,000 이태리 식당, 30년 전통, 높은매상, 월세 \$3500+GST+QST+Biz tax(4500\$/year), 2층+테라스, 매우 높은 마진, 전화요망(rue St.Denis, MTL)
- 30.\$1,090,000 이태리인이 지은 집, 방5, 지하실완료, 아래층은 아파트로 변경가능, 매우 맑은 호수+넓은대지(42에이커)(Rang 2e Street, Ville St.Blaise pres de Napierville)
- 31.\$69,000+재고 40년간 운영한 데파노,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매상, 연매상 50만불 (rue Allard, Montreal)
- 32.\$349,000 새미 커머셜빌딩, 아래층은 데파노(월세\$1600+비즈니스 세금), 윗층은 큰 5½(월세800\$, 전기, 난방별도), 임대7년, 전화요망 (rue Jarry E. Montreal)
- 33.\$769,000 아파트 건물, 연수익 약10만불, 윗층에 아파트3, 아래층 가게3, 변화가, 대지 15,000sft, 약간의 다운페이로 가능(rue Notre Dame Est, MTL)
- 34.\$165,900+재고 드라이 클리닝, 변화가에 위치, 좋은 매상, 건물 매매도 가능 (Blvd Monseigneur Langlois, Ville de Valleyfield)
- 35.\$419,000 새미 커머셜, 아파트2, 아래층은 피자식당, 발리필드 시의 다운타운에 위치, 옆에 대지도 판매(\$99,900) (rue du Marche, Ville Valleyfield)
- 36.\$2,799,000 대지, 17,500sft, 커머셜&주거지역, 6½x72개+가게2개+차고, 아파트 70개+24주차(지하) 가능, 85% 허가 받음(rue Jarry Est, Montreal)
- 37.\$400,000 프랜차이즈 식당, 90석+40석 테라스, 스키 시즌 겨울장사가 좋음, 5½아파트포함, 넓은주차장, 식당포함 매매(rue Adele, Ville St-Adele)
- 38.\$99,000 드라이클리닝, 좋은 빌딩의 코너에 위치, 경험자에게 좋음, 높은 매상, 좋은가격, 적은 지출, 높은마진 (rue Laurendeau, Montreal)
- 39.\$89,900 대지, 5,500sft, 상업&주거 지역, 6-8 아파트 건축가능, 넓은 공간, 좋은가격 (rue Du marche, Ville Valleyfield)
- 40.\$79,000+재고 동양식당, 주방2, 60석, 1050sft, 콩코디아대학 바로옆 (rue Ste-Catherine W. MTL)
- 41.\$39,000+재고 리셉션 홀 + 식당, 120석, 모텔(방13개), 10만sft 대지, 강가, 연수익 10만불, 건물과 함께 구매가능 (\$319,000) (ch. du tour du lac, Ville Nominigüe)
- 42.\$619,900 109,000,000 스케어미터의 농토, 곧 레지덴셜 땅으로 존닝이 바뀔 예정 (rue Montee St.Robert, Ville St.Lazare)
- 43.\$199,000+재고 수퍼마켓, 성업중, 패스트푸드 함께 함, 썬-까뜨린느 변화가에 위치, 콩코디아 대학 부근, 월세 좋은 가격 (rue ste.Catherine west)
- 44.\$750,000 대지, 주거용, 3필지, 건축허가 받음, 필지당 4플렉스 건축시 빨리 팔 수 있음, 빨리 연락주세요 (rue de Monts, Ville Emard)
- 45.\$279,900+재고 서양식당, 성업중, 200석+테라스, 약4800sft, 매우 좋은 손님층, 18년 임대(매년 원가인상 방식) (Blvd. Chambly, Ville Longueuil)
- 46.\$250,000+재고 데파노, 연매상 70만불, 복권 10만불, 순수익 약9만불, 2x3½(윗층), 월세 400\$, 전기,난방 별도 (rue Chateauguay,, Ville Hungtington)
- 47.\$359,000 커머셜 콘도, 1,800sft, 레스토랑 장비+가구 포함, 주차3, 매우 좋은가격 (Blvd. Cure Labelle, Ville Rosemere)
- 48.\$279,000 유명 일식당, 250석, 연매상 \$1.5M, 13년 장기임대 (rue St.Laurent, Longueuil)
- 49.\$8,500,000 호텔 방120개+스파, 넓은땅, 호숫가, 800석 컨벤션홀, 좋은 가격 (Blvd. Montee Yvon Plante, City of Alexis des Monts)
- 50.\$199,900 대지, 상업용/거주용, 약1만sft, 변화가 코너자리, Lachine, 연락요망 (Lachine)
- 51.\$125,000 컨티넨탈 레스토랑, 조용한 불어지역, 매우 좋은위치, 다른 종류 식당으로 변경가능, 건물매매가능(+25,000\$) (rue Ste-Adele, Ville Ste-Adele)
- 52.\$169,000+재고 타바지, 오피스 건물내 위치(3000명 근무) 크레마지 지하철 바로옆, 매우 바쁜거리, 월세 \$1600(세금포함) 9년임대, 순수익 \$85,000 (rue Cremazie E. MTL)
- 53.\$319,000 모텔, 방13개+레스토랑, 멋진 강가에 위치, 멋진 건물, 넓은대지(10만sft), 건물 올리실 분에게 좋음 (ch. du tour du lac, Ville Nominigüe)
- 54.\$59,900+재고 동양식당, 영여권 변화가에 위치, 밝은전망, 월세 \$2700 세금포함, 임대계약 장기로 갱신가능, 새장비(rue Sherbrooke W. MTL)
- 55.\$149,000 드라이클리닝, 장비가 매우 좋음, 좋은 매상, 높은마진, 연락주세요 (Blvd St.Charles, Kirkland)
- 56.\$129,900 커머셜 콘도 150sft, 가장 고급 지역, 웨스트마운트, 사무실로 적합, 좋은 가격 (rue Ste.Catherine West, Westmount)
- 57.\$199,000+재고 피자식당, 같은 주인 40년간 운영, 연매상 50만불, 변화한 몰, 넓은 주차장, 항상 성업중, (Blvd. Henri Bourassa Est, Montreal)
- 58.\$64,900 동양식당, 100석, 데카리 변화가에 위치, 식당 경력 있으신분에게 매우 좋음 (Blvd Decarie, Ville St-Laurent)
- 59.\$59,000+재고 데파노, 빌딩포함, 주택가, 연매상 50만불, 순이익 7만불, 운 좋은 분이 차지할 것입니다 (65e ave, ville Lasalle)
- 60.\$249,000+재고 유명 패스트푸드, 연매상 34만불, 월세 \$5200(모든 세금포함) 좋은 위치, 좋은가격 (Blvd. Mont Royal Est, Montreal)

모기지 상담 환영!
시중 5대은행 및 다양한
모기지 옵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한번에 해결하세요!



서정협
(Justin Suh)

514-244-0751

e-mail : jsuh@sutton.com

COURTIER IMMOBILIER

주택/비즈니스/렌트 (종합 부동산)
부동산 Sutton
GROUPE SUTTON - SUR L'ILE INC.
AGENCE IMMOBILIERE
38, place du commerce #280
(Nuns island 내에 있는 Pharmaprix 2층에 위치)

<p>Condo</p> <p>NEW VENDU</p> <p>Lasalle 앙그리농역 인근 콘도 방3, 욕실1+1, 실내주차, 약42평형 규모, 교통편이. 인근 쇼핑센터 및 지하철 걸어서 5분내 Asking \$398,000</p>	<p>Condo</p> <p>NEW</p> <p>Downtown 방2, 욕실1, Locker, Berri역 걸어서 10분이내. 5대 가전 포함. 2018년 5월말까지 RENT. 투자가치 양호. Asking \$178,900</p>	<p>Condo</p> <p>ACHETÉ</p> <p>Brossard "L Section" 방3, 욕실 2, garage & locker 포함, 2012년 신축 콘도 다양한 편이 및 부대시설, Asking \$359,000</p>	<p>House - Rent</p> <p>NEW</p> <p>Brossard 방4, 욕실3, 실내주차 1, 1998년 건축된 big size house, 12/1일 입주가능, fully furnished 논의가능 Asking \$2,400/월</p>	<p>Condo</p> <p>NUNS' Pyramid Condo. 방3, 욕실2, 실내주차, New floor, new painting, 즉시 입주 가능. \$369,000</p>	<p>단독주택</p> <p>Val-Morin 2006년 건축한 단독주택+3채의 부속건물, 총 4개 건물, 대지면적48,600 SF내외, 펜션, nursing house 또는 B&B 사업 가능 \$549,000</p>
<p>Condo</p> <p>VENDU</p> <p>Lasalle 앙그리농 신축콘도- EQ8 방2, 욕실1, Garage & Locker ±900 SF, 다양한 프로모션가능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람.</p>	<p>Condo</p> <p>NUNS' 년즈내 Evolvo 신축콘도, 방2, 욕실2, 실내주차, 창고, 파노라믹한 riverside view, 고급 부대시설, Asking \$678,000</p>	<p>단독주택(급매추천)</p> <p>Brossard 방4+1, 욕실2+1, GARAGE, 7600 SF규모 사이즈, 고속도로 및 미래 경전철 라인 인근,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 Asking \$398,000</p>	<p>단독주택</p> <p>ACHETÉ</p> <p>LAVAL 방4+2, 욕실 3+1, double garage</p>	<p>단독주택 Rent</p> <p>LOUÉ</p> <p>BROSSARD 실내공간 1,700 SF내외, 방3+1, 욕실 1+2, 고속도로 인근 M 섹션, 1월초 입주가능, 총 대지면적 4,350 SF내외, semi-furnished \$1,750/월</p>	<p>Condo Rent</p> <p>LOUÉ</p> <p>WESTMOUNT Vendome 근처 아파트 서브렛, 방2, 욕실 1, 7월 1일 입주가능, 750 sf내외, 난방, 전기, 온수 포함 가격 \$990/월</p>
<p>단독주택</p> <p>ACHETÉ</p> <p>Chateauguay 지역 단독주택, 방2+1, 욕실1, 대지 5,000 sf</p>	<p>단독주택</p> <p>ACHETÉ</p> <p>Candiac 단독주택 방 3+1, 욕실2, 다수의 레노베이션 asking \$399,000</p>	<p>Condo</p> <p>ACHETÉ</p> <p>Downtown 신축콘도, 방2, 욕실 2, 파노라믹 View</p>	<p>단독주택</p> <p>ACHETÉ</p> <p>Brossard, P 섹션 단독주택 방3, 욕실 2, 실내주차, 대지면적 5,200 sf, 파나마 환승역 인근, 교통최적, asking \$349,000</p>	<p>단독주택</p> <p>ACHETÉ</p> <p>Brossard 단독주택 방3+1, 욕실2, 교통최적 asking \$289,900</p>	<p>단독주택</p> <p>ACHETÉ</p> <p>Pierrefonds 방3+1, 욕실2+1, 다수의 renovation \$449,000</p>

Sunwing 부킹 하기 전에

바로바로에 부킹 하시면 (보시는 사이트 금액) 즉석에서 40\$ Cash back 해 드립니다
(2인 1실 일주일 올 인크루시브 패키지 기준)

www.barobaro.ca

바로바로 여행사

한번 경유하는 비수기 서울 세일이 다 모였다!
(출발날짜 : 1월1일~4월30일 사이 / 세금포함)

- 에어 차이나 960 \$ 부터
- 대한항공 1195 \$ 부터
- 에어 캐나다 1170 \$ 부터
- 아시아나 항공 1215 \$ 부터

(세일 종결 기간은 항공사 마다 다르니 여행사에 확인 해주세요)

캐나다분들이 찾는 겨울 휴양지 #1 쿠바 SI CUBA !

- (Melia 스페셜리스트가 권하는 ~~~4 to 5 * 호텔)
- Melia Varadero 1075 \$ (1월 21일 출발)
- Melia Las Americas 1345 \$ (1월 21일 출발)
- Melia Cayo Santa Maria 855 \$ (1월 22일 출발)
- Melia Buenavisata with Level service 2155 \$ (1월 29일 출발)
- Melia Jardines Del Rey 835 \$ (1월 25일 출발)
- Melia Cayo Guillermo 937 \$ (1월 27일 출발)

겨울 캐리비안 사우스 패키지 (100이상 그룹 요금) 바로 준비하고 어렌지 해 드립니다!
에어 캐나다 토론토 경유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는 최저가 세일 요금 좌석
- 저희와 먼저 상의 해 보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되세요!

서울발 몬트리얼행 티켓, 한국에서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유류 할증료 및 서비스 요금 OPC FICAV 펀드차지 (1\$/100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맥길 메트로에서 1분거리)

VOYAGES **BARO BARO**

514-939-1237

voyagesbarobaro@bellnet.ca
2075 boulevard Robert-Bourassa suite 1207
Montreal Quebec, H3A 2L1 (OPC-702659)

18년 경험의 에이전트가 티켓 및 여행의 궁금함을 풀어 드립니다



제 3 회 코윈 신년파티

Bringing It On 2018!



"몬트리올에 숨어 있던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OLYMPIA 파티홀

(3855 BOUL SAINT-JEAN, DDO H9G 1X2)

2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 2018

5코스 디너(식사 전 칵테일과 에피타이저, 수프, 샐러드, 플레미냥 또는 언어, 디저트 및 커피/차)
공연, DJ, 댄스, 경품

대상 : 만 18세 이상 여성 및 남성 모두 환영
드레스 코드 : SEMI-FORMAL / 칵테일 드레스
프로그램 : 색소폰연주, 사물놀이, 가수, 가야금, 플루트, 스윙댄스
가격 : \$50, (코윈회원 \$45)

티켓구입 및 문의: 514-213-2460, 514-586-3951,
514-662-7924, 514-549-8268, KOWINMTL@GMAIL.COM

KOWIN MONTREAL

주최 :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몬트리올 지회
후원 : 대한민국여성가족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민주평통몬트리올지부
협찬 : 한국식품, KUKI, E.W. NETWORK 유학원, 로젠택배, MVIP모드변, 박부영, ATTI, 안건수, 김홍래



부동산전문

514-913-4288

부동산 구입과 모기지를 한 곳에서...

Msjung@immo-superior.com



정민수

(B.Th., RCIC)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 Mortgage Specialist

만나면 만날 수록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더욱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물



NEW
\$414,000
DDO: Detached Bungalow 3+1 bed, 2 full bath, 1차고. 나무바닥 (1층), 지하완료, 지붕(2014), 수리된 부엌. Central heating, Central A/C



NEW
\$649,000
다운타운 : McGill대 앞, 넓은 2 beds + 2 Bath (1,345 sf), 1 garage. 새로 수리된 콘도, 대학 캠퍼스와 Mont-royal 산 View, Central A/C



NEW
\$499,000
Nun's Island (Sommets IV) : 3 Beds + 2 full bath + 1 garage. 10 feet의 높은 천정, 시 감정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좋은 기회



NEW
\$819,000
Brossard, 2010년, 남향 밝고 아주 넓은 단독주택. 4+2 침실, 3+1 Bathroom, 1 garage. 새로 개발된 C section 위치. Chevrier terminal (다운타운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인접



NEW PRICE
\$849,000+GST/QST
Le Plateau - Mont-Royal길에 가까운 상가 집중지역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준상가 건물 (상가 1, 아파트 2)



NEW PRICE
SOLD
\$489,500
Laval (Ste-Dorethee), 2004년 아주 밝은 단독, 침실3, 욕실2+화장실, 차고1. 상가 가깝고 주변 학교도 좋은 위치. 새 수영장 (2015) Heated, Sal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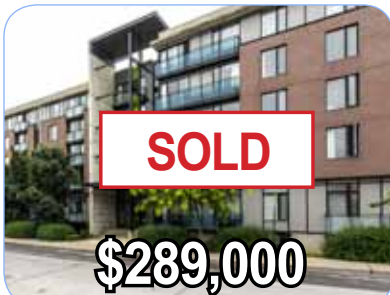
NEW PRICE
\$329,000
ST-Lambert : 침실 2, 욕실 2, 화장실 1. 햇볕이 잘드는 타운 하우스. 지하 finish 되어 있음. 콘도피 없는 타운하우스



NEW
\$549,000
실내면적 3,569sqf의 넓은 공간, 대지 7,900 sf
Ottawa에서 3분거리
Gatineau 민박, 하숙에 최적화된 투자건물 (duplex) 침실 9 욕실 4, 독립 출입문 3. 2층은 따로 리스 가능한 duplex. 가파노 강을 바로 본 view. 수리되어 있는 건물



NEW
\$3,500+GST/QST/Net/M
Le Plateau 지역, Boul. St-Laurent 길에 위치한 1,760 sf의 공간. Mont-Royal 길과 가까운 위치.



SOLD
\$289,000
Ville-Marie 콘도 침실 2, 욕실 1, 2007년 신축, Papineau 지하철에서 도보 6분 거리



NEW PRICE
\$308,800
South-West 침실 2, 욕실 1, 화장실 1, 외부 주차공간, 차고 1, 북층으로 되어 있는 콘도



NEW
\$409,000
Old Montreal : 침실 2, 욕실 1, 차고 1, 2015년 신축 콘도. 14층 높이에 거실 open view. 교통편리. Square Victoria 지하철 500m



NEW PRICE
\$309,000
Candiac 타운하우스 침실 2, 욕실 1, 화장실 1, 차고 2, 2010년 신축, Central Heating/Central A/C 등 많이 업그레이드 된 타운하우스



SOLD by me
\$488,000
LaChine : ASKED Townhouse, 3 bedrooms, 1+1 bath, 2 indoor garage



SOLD
\$449,000
Ville-ST-Laurent 타운 하우스 : 2 BDR + Large Mezzanine, 1+1 Bathroom, 2 Indoor garages



NEW
SOLD
\$618,000
Neuveau ST-Laurent : 침실 3, 욕실 2, 화장실 1, 차고 2, 넓은 Mezzanie. 지하 오피스/패밀리 룸 가능한 공간. 앞 건물과의 거리와 나무가 있어 답답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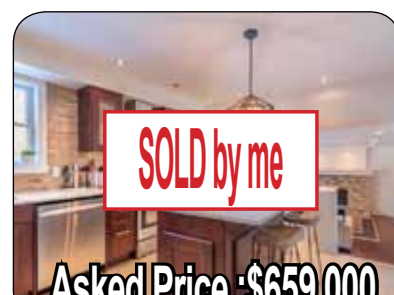
NEW
SOLD
\$459,000
Neuveau St-Laruent : 침실 3, 욕실 1, 화장실 1, 차고 2. Mezzanie에 패밀리룸까지 갖춘 타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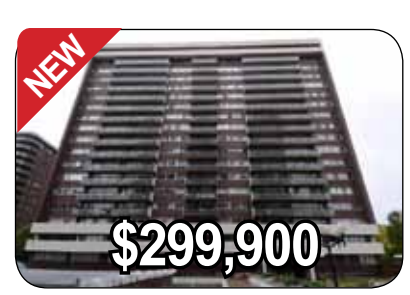
NEW
Listed and Sold by me
\$399,000
넌스 (Nun's Island) - 콘도 : 침실 3, 욕실 2, 차고 1, 실외 파킹 1, 차고 2, 새 초등학교 부근, 쇼핑몰 대중교통 가까우며, 아주 밝은 유닛



SOLD by me
\$375,000
DDO : ASKED price : Detached Split level 3+1 bedrooms, 2 bathroom, 1 indoor ga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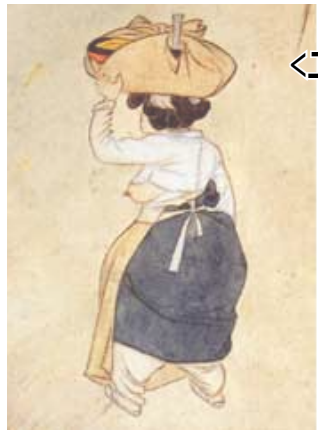
SOLD by me
Asked Price : \$659,000
Brossard (R section) : 침실 4+1, 욕실 2+1, 더블 가라지. 조용한 주택가의 햇살이 많이 드는 집.



NEW
\$299,900
Investment 2018년 8월 말까지 \$1,700/m 렌트되어 있음

15곳 이상의 금융기관과 “직접” 모기지 상담에서 승인까지 한 곳에서...





<그때를 아시나요>

전나유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뚝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한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뚝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한 곳 희망의 나라로 //”

오랜만에 들어보는 가사일 겁니다. 음악가 현제명씨가 작사 작곡한 우리 나라 가곡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주 들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와 테너 가수의 합창 노래 소리가 라디오 속에서 심심찮게 흘러 나오기도 했고 학교 음악시간에 정식으로 배우던 가곡입니다.

음악 선생님의 정열적인 지휘로 합창을 하기도 했으며 내로라 하는 교내 가수가 솔로로 독창을 할 때는 가슴까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그만큼 ‘희망의 나라로’란 노래는 곡 흐름이 힘이 있을 뿐더러 가사 또한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하루를 지나다 보면 어느 새 입속에서는 허밍이 흘러 나올 정도로 친숙한 곡이었습니다. 대외적인 음악제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아 온 학교 동창이 전교생 앞에서 행사 때마다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 중 다수의 곡이 ‘희망의 나라로’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노래를 부르다 보면 힘이 불끈 솟아 오르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험한 바다 물결이 우리 앞을 가로 막는다 해도 우리 배를 저어가야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평안의 언덕을 향해서. 그곳엔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바람이 우릴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산천 경계가 훌륭하게 펼쳐 있습니다. 아무리 칠혹같은 어둠이 짙을지라도 새벽은 오고야 말 것이며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동이 터 오는 것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푸르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망이 저절로 솟아오르는 힘의 노래, 비전의 노래로 다가 왔던 지난 날이었기에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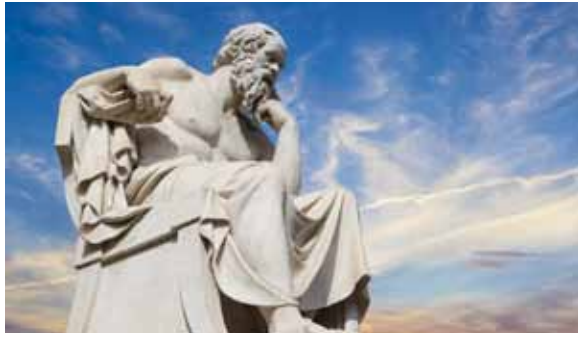
뚝을 달고 꿈과 희망이 부르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할 우리입니다. 맹그렁~ 가슴을 울리는 종소리 들으며 희망이 가득한 곳,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곳을 향해 뚝을 울려야 합니다. 평화로이 다스려 가야 할 꿈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린 외칠 것입니다.

그 어떤 걸림돌도 우릴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푸르른 꿈을 펼쳐고 그것의 성취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문을 발견하고 열어가야 할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면 꿈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토론하고 나누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소박한 찻집일 수도 있고 묵은 담요 한장 다리에 나눠 덮고 앉은 우풍 센 허름한 자취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걸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웬 호텔 커피숍에서 화려한 외출을 하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곳이 되었건 꿈을 나누고 희망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우린 기쁨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갈 수 있고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며 꿈꾸던 그때, 그때를 아시나요.



장동헌 기자의 <세계 인물> ‘아담에서 저커버그까지’

47.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년 4월 26일 ~1616년 4월 23일)는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시인이다. 그의 작품은 영어로 된 작품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다.

셰익스피어는 잉글랜드 중부 영국의 전형적인 소읍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출생했다. 그의 가족은 중류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그런대로 고생 없는 소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577년경부터 가운데 기울어져 학업을 중단했고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셰익스피어는 주로 성서와 고전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 라틴어 격언도 암송하곤 했다. 셰익스피어는 11세에 입학한 문법학교에서 문법, 논리학, 수사학, 문학 등을 배웠는데, 특히 성서와 더불어 오비디우스의 ‘변신(變身)’은 셰익스피어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됐다.

이 당시에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식 있는 작가들을 ‘대학재사’라고 불렀는데, 셰익스피어는 이들과는 달리 대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고난 언어 구사 능력과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다양한 경험,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력은 그를 그 어떤 삼류보다도 위대한 작가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런던에 이주한 셰익스피어는 눈부시게 변하고 있던 수도 런던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1558~1603)이 통치하던 이 시기의 런던은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되어 대단히 북적거리고 활기 넘치는 도시였다. 런던은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도시는 지저분해지고 많은 종류의 문제점이 야기된 도시였지만, 활기 넘치는 사람들과 다양한 경제 활동, 다양한 종류의 문화 활동과 행사, 특히 빈번한 연극 공연은 많은 사람

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의 활동기는 1590년~1613년까지의 대략 24년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0편의 비극(로마극 포함), 17편의 희극, 10편의 역사극, 몇 편의 장시와 시집 ‘소네트’를 집필하였고, 대부분의 작품이 살아생전 인기를 누렸다. 1590년대 초반에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타이투스 안드로니커스’, ‘헨리 6세’, ‘리처드 3세’ 등이 런던의 무대에서 상연되었고, 특히 ‘헨리 6세’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도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인기는 더해 갔다. 1623년 벤 존슨(Ben Jonson)은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셰익스피어뿐이라고 호평하며, 그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1668년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은 셰익스피어를 “가장 크고 포괄적인 영혼”이라고 극찬한다. 생전의 엘리자베스도 셰익스피어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국가를 모두 넘겨주는 경우에도 셰익스피어 한명만은 못 넘긴다.” 이었다. 1606년에서 1607년을 지나면서 셰익스피어는 몇 편 안되는 희곡을 썼으나 1613년 이후에는 그의 창작으로 분류될 작품이 하나도 없다. 그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햄릿’, ‘오델로’, ‘리어왕’, ‘맥베스’,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등이 있다.

셰익스피어는 1616년 4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죽은 뒤에 고향의 성 트리니티 교회(Holy Trinity Church)에 묻히게 된다. 그의 흉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판단은 네스터와 같고, 천재는 소크라테스와 같고, 예술은 버질과 같은 사람. 대지는 그를 덮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올림푸스는 그를 소유한다.”

그의 희곡 전집은 1623년 극단 동료의 손으로 편찬되어 세상에 나왔다. 그에 대한 평가는 생전에 이미 최대의 찬사를 받았고, 죽은 후에도 계속 숭앙의 대상이 되어 거의 신격화(神格化)되었다. 비평가 칼라일이 “영국 식민지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역사의 유산이었다. 그는 ‘온화한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었지만, 인간 심리의 통찰에는 비할 수 없는 넓은 안목을 가졌고, 완성 과정에 있던 근대 영어의 잠재능력을 극도로 발휘하며 시극미(時劇美)의 최고를 창조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시공을 초월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 있다. 심지어 현대의 경영학자들이나 정치가들에게도 셰익스피어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또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유명한 대사처럼 셰익스피어는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술한 명대사를 남겼다.



MC 몬트리얼 카딜
정직과 신뢰의 새 차, 중고차 딜러!

대표전화: 514-303-0433
팩 스: 514-683-6888
웹사이트: www.montrealcardeal.com
E-mail: montrealcardeal@videotron.ca

새 차!
오퍼 받으신 가격이 정말 BEST인가요?
당사가 드리는 가격은 거의 모든 딜러에서 계약후 추가하는 별도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MONTREAL 최저가 개런티!
최소 500\$ ~ \$2,500 이상 저렴!
구매종류 : 현금구매, 파이낸싱 구매 그리고 리스
*당사에서 차량구매시 보험, 차량등록, 운전면허증 교환 등 각종 정보 및 서류 취득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고차!
중고차는 년식, 차량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사는 정밀한 차량 점검 및 품질관리로 최고의 차량을 공급합니다.
당사에 고객이 찾으시는 차량이 없을 경우 최대 2주내에 가장 좋은 차를 알선해서 공급하는 고객맞춤 서비스도 당사의 자랑입니다.

1년 단기 리스 가능
(\$300/MONTH WITH 0 DOWN)
몬트리얼에 1~2년 머무르시는 경우 최고!
FULL WARRANTY가 포함

오시는 길 : 5050 rue PARE, #287, Montreal, QC H4P 1P3

재키의 자동차 여행



마스크와 자동차



박재길

얼마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군대에서 방독 마스크를 쓰고 가스 훈련을 할 때 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했다. 필자가 군 생활을 시작하던 신병훈련소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이 훈련. 물론 1주일간에 걸친 산에서의 유격훈련도 매우 힘들었지만 최루탄을 터뜨려 놓고 막힌 곳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그 마스크를 벗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군가를 부르던 시간은 정말 '지옥'을 연상케 할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음은 당근. 군대가 아무리 비 이성적이라지만 신병교육대 때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줄서기와 심한 말, 구타는 인격이 없어져야만 군기가 바로 선다는 그들의 신념이 옳다는 듯 군 생활내내 따라다녔고 병장이 되고 지나온 시간을 즐기는 위치에 섰음에도 여전히 낯선 나의 모습이 군대라는 이질문화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의 군생활은 끝났다. 그리고 사회생활이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인가를 아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그 뒤로 사회생활에 묻혀 자유의 소중함을 잊었다. 그리고 그 방독 마스크와 동굴속의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까지도.

그런데 재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활보하고 조깅을 하면서 온 얼굴을 감싸고 있는 걸 보면서 별안간 옛 군대의 방독마스크의 추억이 몰려왔다. 서울의 한낮이 마스크를 해야만 할 정도로 공해가 심한지를 그때에 알았다. 노래 '아름다운 강산' 대신, 황사와 미세먼지가 활개치는 조국. 지금 지구상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대도시가 별로 없지만 그나마 너무나 맑은 하늘과 반딧불을 볼 수 있는 희귀한 도시중의 하나인 몬트리올에서 살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마스크가 다시금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한 기사가 등장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기념하는 북한의 한 악단단장이 한국을 찾아와서 공연장소를 점검 하던 중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는 보도다. 그녀에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조국에는 미세먼지가 없어 아름다운 '북조선'이라 생각 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이기적인 인간의 행위 자체 많은 대도시를 인간이 살기엔 위험한 도시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사용을 지양하도록 무료 공공차량 승차를 제시하였는데 그 비용이 하루에 50억이 든다는 게 문제.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줄어든 교통량이 겨우 2% 이하라고 제시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속의 유다가 예수님 몸에 붓던 향유를 붓던 한 여인에게 그 향유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게 더 낫다고 꾸짖던 일이 왜 생각난 건지 모르겠다. 대안도 없이 비난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을 이제 겨우 살리려고 하는데 좌파정권 나라를 말아 먹는다는 둥 한반도기는 안된다는 그들의 모습에게서 유다의 미래의 모습이 투영되는 건 오버일까? 아무튼 미세먼지로 인해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미리 시행해서 효과를 본 파리의 정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라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파리는 강제 2부제 차량 정책으로 통행량 18%, 미세먼지 6%, 질소산화물 10%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 다. 물론 파리는 강제할 권한이 파리시장에게 있지만 서울시장은 자율조치권만 뿐 이라니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로 좋은 환경에서 서울시민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닐까?

물론 런던은 2003년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교통과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데 이로 인해 도심 차량 통행량은 35%, 15%, 질소산화물은 13%가 줄어들었다. 당근과 채찍의 정책의 차이이긴 하나 워낙 비싼 런던의 물가에 혼잡 통행료는 시민의 발을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열차통행료가 천문학적으로 뛰게 하는-민영화의 결과로-이중적 정책으로 런던이 결코 19세기를 선도하던 도시에서 죽어가는 도시의 모습으로 정체된 모습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다. 그 유명한 스모그현상의 도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이 선택한 길은 살기위한 몸부림이었던 셈.

현대자동차가 'Nexo' 라는 한번 충전에 580km를 달리는 수소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차를 필두로 수소 전기차의 대세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이미 수백만대 이상 팔린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더 친환경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 물론 현대자동차의 광고에서 '마스크가 없는 세상으로' 하면서 한 여자아이가 바깥으로 마스크를 벗고 차를 타러 나가는 장면이 우리의 바람을 대변해 주긴 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친 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이제 정말 필요한 시기가 본다. 더 이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전에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이상기 온현상. 이것이 굳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 켜고 끄는 자동차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씩 양보해서 최상의 친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지키야 하는 것임을 2018년 벽두에 다시금 깨닫는 중이다.

재정상식



최광성

이민 재정 수상(隨想)

캐나다의 자동 재산 증식 시스템들을 짚어본다. 이 시스템들은 모두 나라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과 민법, 상법상의 혜택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유의 나라이기에 이를 택해 시작하는 국민들만이 혜택들을 볼 수 있다. 옛날에 한 부인이 남편 목에 락 목걸이를 걸어두고 며칠 친정 다녀왔더니 남편 굶어 돌아가셨더라는 우화처럼 멋지게 보이고 또 돈 되는지 알아도 내 것으로 챙기는 노력, 즉 여기 시스템을 밟고 강을 건너는 결단 없으면 정부의 모든 혜택과 나오는 상관이 없어진다.

자연히 훗날 캐나다는 세금만 높고 해 주는 것도 없어라고 공연히 옆사람들에게 불평... 그러면서 저소득층 보충연금을 더 받으려는 노심초사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캐나다식에 마음을 열고 투자를 시작해 놓았더라면 안정된 연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만들어 평생 받으며 떼떽하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충연금을 양보하며 주는 삶을 살 수 있었을텐데...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됨을 또한 알았으면 좋겠다.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 국제적 전문가 되었어도 우리 아이들은 재정 시스템은 잼뱅이(?)인 단점이 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회사나 사회 생활에서 밀려, 너드 비슷해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뜻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에 좋은 곳으로 3번 이사가며 애써 성현을 만들었지만 우리 1번 큰 이민 이사가면서 부모가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 쓸 총알들도 풍족하게 준비해 놓는 지혜를 사모할 때가 아

닌가 싶다. 부모의 멋진 은퇴 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녀의 현실감 교육을 위해 캐나다식 재정 시스템, 즉 자동 재산 증식 시스템을 한 두서너개 갖고 운영하는 것은 이민 성공에 거의 필수에 가깝다.

투자 증식하는 동안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는 면세복리 특혜, 유연장 없어도 유산 상속인이 초특급으로 돈 받는 민법상의 특혜, 사망시에는 망자의 재산이 세무서 거칠 필요없이 상속인에게 세금 환급없이 완전 면세 캐시로 즉시 지급되는 캐나다의 보험 재산 증식 시스템은 그 우선순위가 1위이다.

그 다음은 부은만큼에 해당되는 세금이 깎이며 부은 돈은 면세복리로 증식하는 근로자용 RRSP나 혹은 완전면세로 국민 개인당 2009년부터 연 5,500불씩 투자할 수 있는 TFSA가 그 다음 2위. 그 다음 투자 증식하는동안 매월 돈을 투자의 5%를 찾아낼 때, 그 돈이 세금이 뒤로 미뤄지게 최대한 원금에서 부터 지급하는 세금 미루기 이익배당 특수 투자 펀드가 3위쯤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순위를 준비할 때, 요즘 데자르맹 신용조합에서 이익참여형 이익배당 연금보험펀드를 많이 이용한다. 이것은 자동 재산증식시스템안의 투자 증식 주체가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급 신용등급인 120년 역사의 데자르맹 신용조합인데다 지난 25년간 연 6.15%에서 연9%이었던 매우 탁월한 퀵벵 투자 노우 하우를 함께 쉐어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모부터 자녀 평생 동안 2대에 이르기까지 이익 배당을 안정되게 계속 받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공 이민 웨일리의 큰 기동 역할을 맡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메뉴를 소개합니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닭볶음탕, 불닭
홍합탕, 오징어볶음, 어묵탕

생맥주와 함께

메뉴도 안보고 시키는
짜장, 짬뽕, 탕수육

구인 흡서빙, 디쉬와서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 ~ 밤10시
금, 토 : 밤 12시
(수요일 휴무)

중화요리전문점

쉐봉

콤보메뉴(2인기준)

1. 탕수육+짜장 2개
2. 사천탕수육+쟁반짜장
3. 양장피+쟁반짜장
4. 팔보채+쟁반짜장
5. 간풍기+쟁반짜장
6. 고추잡채+쟁반짜장
7. 탕수육+짜장면+짬뽕

1236 rue Mackay, (514)935-8344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의 전 남편에 손해배상 소송 저



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전 남편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며 "물론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서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며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차례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 동안의 힘들었던 심경을 전했다.

조 씨는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

족의 상처와 피해를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 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씨는 "강용석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다"며 "이번 주말 교회에 가지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말라'라고 꼭해라. 명심하고 하긴 개버릇 남주겠냐마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언어 하고 살지... 예고 알아 들었나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라고 덧붙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조용제 씨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대한스키협회 전임 지도자이기도 하다. 조씨는 평창올림픽기간동안 한 매체의 스키종목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는 여성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스캔들이 휘말렸다. 김 씨의 남편은 "강용석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은 자신의 불륜설을 제기한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와 조 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검찰에 민형사 고소한 데 이어 자신의 불륜 스캔들 사진을 보도한 매체와 악플러 200여명도 고소했다.

영국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미국 MLS 구단주가 된다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이 오래된 꿈을 이뤘다. 미국프로축구리그(MLS)의 25번째 축구단 마이애미의 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가디언(The Guardian)의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프로축구리그(MLS)가 마이애미의 새 구단 창설을 승인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영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캡틴'으로 명성을

떨쳤던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2007년 미국 LA 갤럭시로 이적을 했다.

베컴은 당시 LA 갤럭시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향후 프로축구팀 창단을 위해 마이애미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최근까지 약 2700만 파운드(약 431억원)를 투자해왔다.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새 구단 창설 작업에는 베컴을 비롯해 유명 인사 여럿이 함께 나선 상태다.

ESPN에 따르면, 창단 작업에는 아내 빅토리아 베컴과 전직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 그리고 미국프로풋볼(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톰 브래디가 참여한다.

연예계 인사로는 배우 윌 스미스와 제니퍼 로페즈, 가수 제이지, 그리고 스파이스 걸스의 매니저였던 사이먼

풀러도 가세한다. 기업가로는 볼리비아계 미국 기업인 마르셀로 클라우레, 플로리다 남부의 기업인 호르헤와 호세 마스, 일본 소프트뱅크 창립자인 손정의 회장도 있다. 새 구단의 연고지로 지목된 마이애미는 2001년 '마이애미 퓨전'이 생긴 뒤,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축구단이 없었다.

베컴은 2015년 12월 오버타운(Overtown) 지구에 새로운 경기장 부지로 쓸 땅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2만5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며, 2020년부터 리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LS에는 22개 구단이 있으며, 올해 LA FC가 새로 합류한다. MLS는 지난달 내시빌을 연고로 한 축구단도 창단 승인을 하는 등 앞으로 구단 수를 28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금 털어 가난한 고향 사람들에게 '집 1000채' 선물한 파QUI아오



최근 전설의 복서 매니 파QUI아오(Manny Pacquiao)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의 선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0일 온라인 미디어 웨어블리는 파QUI아오가 모아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1000채를 선물한 사연을 소개했다.

파QUI아오는 필리핀 사랑가니주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처음으로 프로 복싱에 입문했다. 이후 WBC 플라이급 타이틀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4체급 타이틀을 석권

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WBO 웰터급 타이틀전을 끝으로 은퇴했다.

살아있는 전설이 된 그는 복서로서 은퇴한 뒤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중이다.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안 마련과 검토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다. 파QUI아오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돈을 투자해 마을에 집 1,000채를 지었다. 집 없이 떠돌거나 무너져 내려가는 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머무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하다"며 "사비를 들였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민들 덕분"이라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파QUI아오의 선행에 마을 사람들은 "파QUI아오는 우리에게 영웅이다"라며 "꿈과 희망을 모두 주는 존재"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인성도 챔피언", "1,000채를 사비로 들여 지었다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 칭찬을 보내고 있다.



DuraA

514-583-7862

www.duraad.com

wkim@duraad.com

125 rue Chabanel O. b211, Montreal (QC) H2N1E4

캐백 면허 건축사 |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 미국_캐나다 친환경 인정 기술사 (건물설계+시공) 김원철

Won Chul KIM architect licensed by OAQ | architect DPLG France | LEED AP (BD+C) by US_CAGBC

건축 설계 (문화, 영업, 교육, 근린생활, 주거, 업무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

Architectural Design (cultural, business, educational, institutional, mercantile, residential, environmental design, etc.)

인테리어 디자인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가구디자인 등) **Interior Design** (renovation, remodelling, furniture design, et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디자인 컨설팅, 건설 매니지먼트, 행정대행 업무)

Project Management (design consulting, construction management, agency business for administrative works)



이상화 자존심 사수할까, 고다이아 한풀이할까



30년 전 한국에서 열린 88 서울 올림픽. 가장 빠른 사나이를 겨루는 남자 육상 100m는 최고의 라이벌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대결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얼음 위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겨루는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최고의 라이벌전이 펼쳐진다. 여자 500m에서 '빙속여제' 이상화(29)와 '대항마' 고다이아 나오(32·일본)의 대결은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2010년 밴쿠버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딴 이상화는 3연패에 도전한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기록될 위업이다. 그 길목에서 이상화가 넘어야 할 걸림돌이 바로 고다이아다. 올림픽에서는 고다이아가 이상화에게 도전하는 것이지만, 최근 국제대회 성적을 보면 세계랭킹 1위 고다이아에게 2위 이상화가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고다이아는 이번 시즌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시리즈 500m를 모두 석권했다. 2016~17시즌부터 최근까지 각종 대회에서 24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36초50으로 자신의 최고기록을 냈다. 현재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 종목 세계기록 보유자는 이상화다. 2013년 11월 월드컵에서 기록한 36초36의 세계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지만 고다이아가 근접해 있다. 지난 시즌까지 종아리 부상으로 고전한 이상화도 지난 월드컵 4차대회 1차 레이스에서 36초71을 기록해 최근 2년 사이 최고의 페이스를 보이며 올림픽을 베풀고 있다.

고다이아가 따낸 유일한 올림픽 메달은 밴쿠버 올림픽 팀주월 은메달이다. 이상화가 500m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밴쿠버에서 고다이아는 12위였고, 역시 이상화가 금메달을 지켜낸 4년 전 소치에서 고다이아는 5위에 그쳤다. 평창은 고다이아가 설욕을 위해 나서는 무대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친 뒤 28세 나이에 홀로 네덜란드로 빙상 유학을 떠난 고다이아는 2년 동안 '빙상강국' 네덜란드의 프로 팀에 소속돼 유럽 선수들과 경쟁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후 전혀 다른 선수가 돼 3살이 어린 '여제' 이상화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고다이아의 '한' 만큼이나 이상화의 '자존심'은 강하다. 지난 12일 태릉에서 열린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한 이상화는 "조금만 더 보완하면 승산 있을 것 같다. 평창은 내 것이라 말하고 싶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월드컵 대회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모든 레이스를 그 선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물론 상대 분석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화가 말하는 '그 선수'가 고다이아다. 이상화는 고다이아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도 의식하지 않겠다는 듯 언제나 '그 선수'라고 지칭한다. 경쟁 관계에 있지만 최고는 '나'이며 고다이아도 경쟁해야 할 여러 선수들 중 한 명일뿐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상화와 고다이아의 대결은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3연속 금메달이나, 일본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최초의 금메달이나를 놓고 벌이는 한판승부이기도 하다.

두 선수의 대결은 오는 2월18일 저녁 벌어진다.

'전쟁터 같은 도시' 브라질 리우 1월에만 총격전 688차례

작년 1월보다 117% 늘어...사망 146명, 부상 158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



리우 시내 시다지 지 데우스 빈민가에서 경찰이 범죄조직원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고질적인 치안불안이 계속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가 올해도 폭력적인 첫 달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리우 시 일대에서 발생한 총격전은 688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2차례씩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317차례)과 비교하면 117% 늘어난 것으로, 리우의 치안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한다. 수시로 벌어지는 총격전 때문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총격전 과정에서 146명이 사망하고 158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1월에는 사망 115명, 부상 141명이었다. 리우 빈민가에서는 경찰이 대규모 동원돼 '범죄조직과 전쟁'을 벌이면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지난 30일 리우 시 북부 자카레지뉴 빈민가와 남부 호싱야 빈민가, 북부 모루 다 포르미가 빈민가에서 동

시에 단속작전을 벌여 범죄조직원 5명을 사살했다. 단속작전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범죄조직원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31일에는 리우 시 서부지역에 있는 시다지 지 데우스 빈민가에서 경찰과 범죄조직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사망했다.

리우 주 정부 산하 공공치안연구소(ISP)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리우 주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으로 6천731명이 사망했다. 주민 10만 명당 40명꼴로 사망했다는 의미로 지난 2009년(44.9명) 이래 최악이다. 지난해 리우 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1천124명으로 파악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브라질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따른 인명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인권보호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찰관 사망 사건도 계속되고 있다. 리우 주에서는 지난해 경찰관 137명이 근무 중 또는 비번 상태에서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10여 명이 피살됐다.

'촛불의 힘'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 순위 전 세계 20위로 상승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상승했다.

31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20위를 차지했다.

EIU는 순위를 밝히며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상승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

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민자유' 항목 8.24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참여' 7.22점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19개국에는 한 계단 차이로 끼지 못했다. 한국은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현재 EIU는 8.01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6.0~8.00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준점수 8.01점 이상을 넘긴 '완

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8.01점 이상을 받은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9개국이었다. 다만 한국은 선진국 중 미국(21위, 7.98점), 일본(23위, 총점 7.88점), 프랑스(29위, 7.80점)보다는 순위가 높았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 2위는 아이슬란드(9.58점)이며, 꼴찌는 167위(총점 1.08점)를 기록한 북한이었다. 166위인 시리아(1.43점)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인 북한에 대해 EIU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굳건한 최하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삼계탕**을

막걸리 개시

다운타운에 오시면 불고기하우스를 찾으세요

시원한 생맥주도 있습니다

백삼을 듬뿍 넣고 푸욱~ 달았습니다

불고기하우스에서

푸짐한 안주
10여종 전골류
20여종 요리

<영업시간>
오전 11시 부터

저녁 웨이터/웨이츄러스 구함

2127 Ste-Catherine O.
전화 : 514-935-9820

먹거리와 건강

이미정 (한 의사)



막성 사구체 신염

1. 이 질병은?
면역 침착으로 사구체 모세혈관 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성인에게 발병하는 신장 증후군의 원인 중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이다. 사구체란 긴동맥에서 나온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친 덩어리로 신동맥을 통해 신장 속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를 거치면서 불과 전해질, 각종 노폐물을 보우면 주머니 속에 분비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세뇨관, 신우, 요로를 거쳐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따라 몸밖으로 배출되며 사구체 손상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2.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암 (폐, 장), 감염 (간염, 말라리아), 약물 (페니실라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등과 연관되기도 한다.

3. 증상은?
사구체 세포가 붙어있는 기저막이 두꺼워져 있으며 세포의 증가는 없다.

4. 진단은?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기 위해 환자가 과거에 앓았던 감염, 긴장 질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소변량, 배뇨 횟수, 소변 색, 붓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혈압,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면역체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장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5. 치료는?
막성 사구체 신염에서 신장은 육안적으로 찌그러진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 질환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시도된다.

6. 합병증 및 치료 결과는?
환자 중 1/3은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1/3은 병이 완화되고 나머지 1/3은 말기신장부전으로 이행되며 사구체신염이 진행되면 사구체와 분리되었더라도 신장 세뇨관이 위축되거나 유리질화의 양상을 보이는 등의 소견을 보인다.

7. 예방은?
감염후 발생하는 사구체 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의 사구체 신염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다.

질병 분류명 : 신장 (콩팥), 비뇨생식계 질환
관련질환명 :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 급성신부전, 전신홍반루푸스 (전신 홍반성 루푸스) SLE

욕실 청소 주기는 며칠이 적당?



변기는 며칠에 한 번 닦는 게 적당할까? 샤워 커튼은 얼마마다 빨아야 하는 거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욕실 살림살이의 주기를 소개한다.

칫솔걸이는 보름마다

2011년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칫솔걸이는 (행주와 부엌 개수대에 이어) 집에서 세균이 세 번째로 많이 득실거리는 장소였다. 습기 때문에 생기는 효모와 곰팡이, 칫솔에서 묻은 음식과 타액의 박테리아 때문이다. 2주에 한 번은 칫솔걸이를 씻어라. 뜨거운 물로 적시고 솔로 문질러 닦는다.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젖병 세제를 채웠다가 심어 분 후 행구는 것도 좋다.

샤워 커튼은 이틀마다

촉촉한 샤워 커튼은 곰팡이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곰팡이는 전염성은 아니지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흠씨를 퍼뜨리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샤워 커튼이건 세면기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 게 이상적이다. 샤워 커튼의 경우 매번 그럴 수 없다 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세탁해야 한다.

목욕 타월은 세 번 쓴 다음

수건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기생하기 쉽다. 부피가 커서 간수하기 힘든 목욕 타월, 그래도 세 번 쓴 다음에는 빨아야 한다. 젖은 발을 닦

는 매트도 마찬가지로.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으로 두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두 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다. 60도의 물을 쓰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드기를 없앨 수 있다. 온도가 그보다 낮다면 세탁용 살균제를 사용해야 한다.

세면 타월은 매일

수건은 매일 빨아야 한다. 젖은 수건은 박테리아 번창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심지어 습하고 따뜻한 욕실에 걸려 있기 때문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수건을 온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라면 더욱욱 매일 갈아야 한다.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손을 씻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건을 통해 박테리아가 옮겨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변기 시트는 닷새마다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들끓는 곳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14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 손잡이보다 행주에서 여섯 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나왔다. 사실 변기에 앉는 것으로 세균이 전염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감기나 독감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제대로 씻지 않은 손이다. 표백제로 변기의 앉는 부분과 손잡이를 닷새에 한 번 정도 닦아야 한다.

전기 공사

BUMA ELECTRIQUE (뷰마전기)

- 가정용/상업용/ 산업용 전기공사
- 서비스 내용
 - > 배전반 신규, 교체 및 용량 증설 작업
 - > 레노베이션 전기 공사
 - > 조명 공사 및 누전 공사
 - > 전기 콘센트 / 전기 히터 / 전기 제품 설치
 - > 내외선 신설 및 증설
 - > 전기 고장 수리
- RBQ : 5643-2446-01(퀘벡건설협회 전기공사 Licence)

514-928-0423 (전기기술자 : 임범철)

e-mail : bumaelectrique@gmail.com

밝고 건강한
우리아이

태권도

유.초.중.고, 남녀 성인부 - 개인.소그룹 지도
품세 겨루기 챔피언, 사범양성반
여성, 시니어 특별그룹반 (오전.오후반)

권장원 태권도
라이온키즈 아카데미

www.kwontaekwondo.com 전화 514-553-8673

f KwontaekwondoLIONkidsAcademy

<권장원 관장>
캐나다 태권도 국가대표
쌍장 사관학교 태권도 사범
주니어 캐나다 챔피언 코치
대한민국 장관 표창
한중미.캐나다 교류 무역회사 운영

항상 피곤하면 의심해야 할 병 5



불면증과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바쁜 일상과 화려한 밤 문화, 스마트 기기의 사용 등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매일 과도한 피로에 시달린다면 이 같은 요인이 원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식습관만 개선해도 2~3주 안에 피로감이 해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수분과 비타민 섭취량을 늘리고, 이전보다 수면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때는 다른 병적인 원인을 고려해 봐야 한다. '프리벤션닷컴'에 따르면 지나친 피로는 몇 가지 질병의 징후로 나타난다.

1. 빈혈증
빈혈증이 있을 때 느끼는 피로는 적혈구 결핍 때문이다. 적혈구는 폐로

부터 산소를 가져와 온몸의 조직과 세포로 전달한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호흡이 약해진다. 빈혈증은 류머티스 관절염, 암, 신부전 같은 질환이 있거나 철분 혹은 비타민 부족, 내출혈이 있을 때도 올 수 있다.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은 철분이 부족해 빈혈증이 오기 쉬운데 이는 월경으로 인한 출혈, 임신이나 모유 수유 등으로 빠져나가는 철분 때문이다.

빈혈증의 주된 증상은 피로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잠들기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박동수는 빨라지고 가슴 통증,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계단을 오르는 등의 단순 활동만으로도 큰 피로를 느낄 수 있다.

2. 갑상선 질환

갑상선(갑상샘)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도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쉽게 녹초가 될 수 있다. 넥타이 매듭 정도 크기의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하며 신진대사를 제어하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신진대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근육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허벅다리에서 이 같은 증상을 가장 먼저 느낀다.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는 종류의 운동이 힘들어지는 이유다. 더 불어 체중이 줄고 심장박동 수는 증가하며 생리 흐름이 자주 바뀌거나 목이 마르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근육통이 생긴다. 항상 추위를 느끼고 변비가 오거나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다. 갑상선 질환은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당뇨병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피로에 시달린다. 포도당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되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포도당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온종일 노곤함을 느끼고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잦아진다. 또 배가 자주 고프거나 체중이 줄어 들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4. 류머티스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처럼 자가 면역 질환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쉽지 않다. 단 몇 가지 미세한 변화들은 감지할 수 있다.

면역 반응에 이상이 생겨 건강한 관절 조직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류머티스 관절염은 뼈와 연골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이로 인해 체력과 식욕이 떨어지고 관절 통증이 느껴지며 피로가 누적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최소한 1시간 정도 지속되고 손가락이나 팔목 관절이 붓고 통증이 나타난다면 병원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

5. 우울증

우울증은 수면과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중 하나다. 우울증 증세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수면과 식습관 패턴이 달라진다.

기억력,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등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이런 심리 상태를 보일 때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한인기관 및 단체안내

몬트리얼 한인회	김영권 (514)481-6661
몬트리얼총영사관	허진 (514)845-2555
캐백한인실업인협회	오승철 (514)939-3277
몬트리얼대한노년회	최계수 (514)484-3743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진용 (514)245-6202
세계한인족여성네트워킹	남기림 (514)953-3273
몬트리얼한인학교	정영섭 (514)695-6012
참전국가유공자회	최병철 (514)466-1178
재향군인회 몬트리얼분회	김인규 (514)296-6935
이북오도민연합회	김운철 (514)791-4900
해병전우회	장승업 (514)295-4898
교회협의회	김대영 (514)909-0691
외향선교회	김광오 (514)597-1777
몬트리얼시니어골프회	송재연 (514)383-2470
칠성회(골프회)	정세훈 (514)488-8042
몬트리얼 바둑동호인회	백성근 (514)482-3199
캐백한인테니스회	최성로 (450)672-9332
몬트리얼 야구동호회	최우근 (514)952-1833
캐백한인미술협회	정화자 (514)671-8133
몬트리얼 한인 선교 합창단	임명규 (514)825-5680
몬트리얼 한인 여성합창단	박천실 (514)562-1790
몬트리얼문학회	유희영 (514)481-9871
몬트리얼 한인무역인협회	송재연 (514)383-2470
한식중사지원회	남기림 (514)953-3273
멘토클럽몬트리올	정재호 (514)816-4027
평창올림픽캐나다후원회	김광오 (514)817-7840
재가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박기철 (514)451-9388
콩코디아 대학 한인학생회	강성두 (514)653-5140
캐나다대사관	조대식 (613)244-5010

몬트리얼 종교단체

한인천주교회	이봉춘 (514)989-1033
한인연합교회	김진식 (514)762-0675
로고스 교회	이용화 (514)769-0121
한인장로교회	정문선 (514)678-4322
순복음교회	이승훈 (514)489-9191
한인감리교회	고영우 (514)731-2798
한인사랑교회	김성수 (514)237-1004
호산나교회	허정기 (514)313-6799
논누리침례교회	최병희 (514)815-0691
참빛장로교회	김역 (514)989-2094
몬트리얼 한인교회	하수만 (514)232-2674
새생명장로교회	정성호 (514)549-8014
서광장로교회	황디모데 (514)581-0691
람원교회	강승희 (514)805-6390
몬트리올 제자교회	이지현 (514)884-1417
일본인 선교회	박광수 (514)777-3798
몬트리올 관음정사	전민학 (514)730-4523
원불교 연구회	강희연 (514)731-9841
불교 법우회	이중원 (514)482-4956
열린법회(법륜스님)	정토희 (514)576-1625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MKMC 창립 기념 심령 대부흥회

일시 : 2월 9일(금) - 2월 11일(주일)

- 금요일 집회 : 저녁 7시 30분
- 토요일 집회 :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 주일 집회 : 오후 2시

강사 : 정일남 목사

- 감신대, 감신대학원.
- Ohio UTS 선교학 박사.
- 미주감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 어거스타 감리교회 담임.

687 Avenue Roslyn, Westmount, QC H3Y 2V1
514-808-8628 / www.mkmc.org

코리안 뉴스위크

몬트리얼 514-993-2121

오타와 613-254-9049

몬트리얼 서광장로교회

서광한글영재학교

> **매주일 4:00~6:30**

입학자격: 만 3세 이상 17세 미만
입학문의 : (514) 674-1222, (514) 581-0691

본 교회는 한글영재학교와 주일영재학교, 두 축을 통해 장래 꿈나무들을 양육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일영재학교에서는 CERT와 Photo Bible Study의 Method를 사용하여 교육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으로 바른자세를 익힌 아이들은 반드시 후에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서광주일영재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주일 오후 4:10 ~ 5:30

주일예배: 1:30pm
수요일예배: 7:30pm
새벽 기도회: 월~금 6:00am
토요일 6:30am
청년예배: 금 6:30pm

4020 rue Grand Boulevard, Montreal QC H4B 2X5
Tel: 514-581-0691
Email: seokwangmc@gmail.com

KSCHOI 보험 & 투자(주)

재정 어드바이저 최광성

- 오타와 교민 환영

- 생명, 중병, 상속, 투자보험
- 유학생, 여행자, 치과 건강보험
- TFSA, RRSP, RESP, 고이자 원금보장 저축GIC
- 개런티 연금펀드, 이익배당 투자펀드
- 기타 차, 집, 가계보험 및 모기지 소개
- 신규 데자르맹 원금보장 주식투자 수익증권

Features table

Initial Date for Deposits: January 28, 2017 | Deadline for Deposits: March 24, 2017

Return options	3 YEARS AND 2 DAYS TERM		5 YEARS AND 2 DAYS TERM		6 YEARS AND 2 DAYS TERM	
	Global Financials	Global Financials	Europe	Consumer Staples	Canadian Diversified	Canadian Diversified (550,000+)
Return (%) (guaranteed minimum - potential maximum)	0 - 7	0 - 30	0 - 30	2 - 15	0 - unlimited	0 - unlimited Participation Rate of 110%

GUARANTEE ADVANTAGE

MARKET-LINKED TERM INVESTMENTS

셀) 514-892-3437 회사) 514-748-0878 (4045)
팩스) 514-748-0804 이메일) ks_choi@me.com/ks.choi@sfl.qc.ca

Desjardins Insurance | SFL | SFL INVESTMENTS

코리안 뉴스위크

오타와 섹션

1091호 2018년 2월 3일

Korean Newsweek

제보/기고/광고문의: jyshinottawa@gmail.com (613) 668-3475

오타와 지역 기관 및 한인 종교단체

오타와 한인회	김상태 (613)400-8149	주 캐나다 대사관	신명호 (613)244-5010
오타와 상록회	엄경자 (613)230-5500	한국전참전용사회	Bill Black (613)726-5254
오타와 양자회	박민숙 (613)825-5203	카한협회	이영혜 (613)736-8088
오타와 한글학교	정수영 (613)415-6029	주님의 교회	김영래 (613)408-1737
코원 오타와지회	이선미 (613)864-2873	오타와 한인교회	강석제 (613)236-4442
평통 오타와지회	한문중 (613)795-8895	오타와 새소망교회	성인수 (613)790-0036
과기협 오타와지부	김근수 (613)558-5138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김경웅 (613)314-4113
과기협 청년모임	나동규 (613)265-8571	한국순교성인 천주교회	김현철 (613)237-5528
한인청년학술협회	이승기 (613)890-9307		
칼튼대 한인학생회	한용환 (514)585-0904		
오타와대 한인학생회	곽희원 (647)263-9137		
한웨이 소사이어티	이은혜 (416)201-2188		
한인장학재단	최정수 (613)729-0965		

신지연

오타와 지국장

jyshinottawa@gmail.com



오타와 한인회

ottawakorean.ca
ott.korean@gmail.com



코원 오타와

kowinottawa.ca
문의: kowinOttawa@gmail.com



Tae E. Lee 태권도

www.taelee.ca
(613) 722-6133
1300 Carling Ave

한인미용사 레이첼

504 Bank St

예약: 613-298-8666
화~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민주평통 오타와 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더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참가하게된 북한 선수단도 환영하며,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 가운데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주평통 오타와 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민주평통 오타와지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캐나다토론회협의회 오타와지회(지회장 한문중)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광고를 자체 제작해 오타와 및 몬트리올 지역신문 코리안 뉴스위크를 통해 홍보했다.

한문중 오타와지회장은 "이번 광고 제작은 지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이태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로 시작됐다"며 "민주평통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

으로 잘 치러지기를 원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참가 뜻을 비치면서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우리 자문위원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런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남북이 개막식에 한반도기 들고 함께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광고

를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타와지회는 오타와 한인청년학술협회(회장 이승기)가 주최한 '올림픽 토크쇼'를 후원하였으며, 캐나다 한국문화원(문화원장 이영호)과 함께 오타와 겨울축제인 '2018 윈터루드(2월 2일 ~2월 19일)'에서 평창올림픽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전시회'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많은 관람 바란다.

다들 카페, NAVER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다 풍성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타와·킹스턴 지역 전문 유학원 (캐오에)

유학정보센터 인트로캐나다

유학 컨설팅
조기유학 관리

어학연수

이민정착
라이프 컨설팅

비자상담

225 Paseo Private, Ottawa,
Ontario K2G 4N5
OFFICE (613) 680-5577
CELL (613) 400-8149
ottawa@introcanad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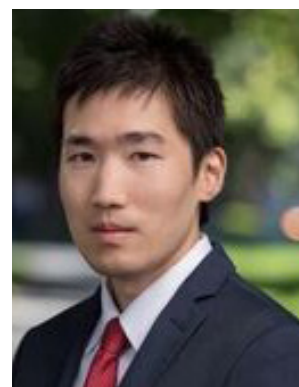


Delaney's Law Firm

543 Somerset St. West, Ottawa

강기훈 변호사

부동산, 공증, 이민, 유산상속
613-233-7000 *1161
ryan@delaneys.ca



Dr. Frank Lee

Family & Cosmetic Dental Care

New patients welcome



모든 환자를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프랭크 리 치과

(613) 232-0392

www.westendsmiles.ca

drfranklee@bellnet.ca

1749 Carling Ave. Ottawa, ON K2A 1C8

Mon~Thur 8:00am to 5:00pm

Contact for Saturday appointment



2018 오타와 한인회 설날잔치

Join us for KCAO 2018 Lunar New Year Celebration

▶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오타와 교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정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타와 한인회에서는 오는 2월 10일 (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과 덕담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 최대의 절기인 설날의 정겨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흥겨운 잔치로서 전통문화와 공연,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와 한인회 (KCAO) 올림

▶ 행사 개요

일시: 2018년 2월 10일 (토) 5:30 PM ~ 8:30 PM
(Saturday) February 10th, 2017

장소: Ron Kolbus Lakeside Centre
102 Greenview Ave. Ottawa, ON K2B 8J8

포트락 파티
각 가정당 음식 한 접시씩 부탁드립니다.
(유학생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Potluck Dinner
Please bring a dish per family to share with others.

어린 자녀들을 위한 베이비 시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Babysitter available

한인회 연회비는 한인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2018년도 한인회비는 한 가정당 \$50 (per family),
개인 \$30 (per person) 입니다.
Annual membership due:
\$50 for family & \$30 for individual

▶ 이벤트 안내

새배 (New Year's Traditional greetings by children)
사물놀이 (Sa-mul-no-ri)
전통악기 연주 (Kayaguem performance)
경품 행사 (Activities for free gifts)

▶ 주 캐나다 대사관 순회 영사서비스

설날 당일 순회영사서비스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대사관 영사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과 문의 (613) 244-5010

▶ 오타와 한인회 문의처

이메일: ott.korean@gmail.com
전 화: (613) 400-8149
ottawakorean.ca
facebook.com/ottawa.ko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류은규의 한방칼럼]

독감의 한방 치료

늘 그렇지만 올 겨울엔 독감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듯 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 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해 제조한 백신을 접종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A형 독감이 유행함과 동시에 B형 독감까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에는 A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초봄에는 B형 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 패턴이었다. 하지만 올 겨울은 예년과 다르게 독감 유행 시기도 빨라지고 A형, B형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으로 독감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 독감 백신 접종자도 감염되는가 하면 A형과 B형 중복 감염, 교차 감염 등의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 특징이다. 고열이 지속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인후통과 콧물, 코막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달리 두통, 근육통, 오한, 복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힘없이 축 처지면서 구토,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고열과 전신 증상이 독감의 특징인데 유형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도 나뉘며 이 중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다. 바이러스 변형이 빠른 A형 인플루엔자는 한겨울에 크게 유행한다. 증상이 비교적 심하고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감염된다. 세계적인 계

절성 독감, 신종플루 등이 A형 독감이라고 볼 수 있다. B형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보다 증상이 다소 약한 편이다. 바이러스 변이가 잘 안 되고 전파 속도가 느려 독성은 약하지만, 봄철 전염력이 강하다.

한의학에서는 고열, 오한,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기침, 두통,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독감 증세를 '시행감모(時行感冒)', 특히 열이 유난히 높고 잘 떨어지지 않으면 온열병(溫熱病)과 비슷하다고 본다. A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太陽傷寒表證) 중에 계지탕증(桂枝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며 약간 땀이 있을 수 있고, 오한이 있다. 이때 두통이 머리 앞쪽으로 있으면 병이 좀 더 깊어지면서 속으로 들어간 경우다. 반면 B형 인플루엔자는 태양상한표증 중에 마황탕증(麻黃湯證)에 가까우며 두통,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안 나고 오한과 몸살이 심하다. 이때는 발한을 시켜서 체표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어야 한다.

독감은 초기에 치료해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간단하게 독감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게 한다. '팔각회향(八角茴香)'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드는 타미플루는 48시간 내로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증상이 약해져도 5일 동안 복용한다. 한약 처방 중에는 '마황감석탕(麻杏甘石湯) 합(合)

은교산(銀翹散)'이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타미플루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몸 안의 나쁜 독소를 땀과 대소변으로 배출하면서 해독과 해열 치료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방 치료는 독감 초기에 효과가 가장 크고 증상이 심화되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낫다.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끝나고 독감 증상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미열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열로 손실된 수분과 영양 보충,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충전하는데 한방 요법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질병은 아플 때 잘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행성 감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와 양치질,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 가까이 깨끗이 씻는다. 외출할 때 특히 협소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다. 평소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신체활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새생명 한의원에서는 보험 청구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원장 한의사 류은규
Ottawa 불임센터 협력한의사
McGill 의예과졸
Mercy College 한의대 수석졸
경희대 국제한의학과 수료
북미 한의사 자격증

특진: 불임, 경년기장애, 알레르기, 남성보양,
청소년 총명탕, 통증, 어린이 성장, 산후조리

* 몬트리얼 교민분은 자세한 전화 상담 후
한약을 배송해 드립니다.

예약, 상담 전화 613-863-6906
106-2211 Riverside Dr. (at Bank St)
www.freewebs.com/newlifeacu

오타와에서 판소리를? 명창 배일동, 교수 김동원 '심청가' 공연



명창 배일동과 교수 김동원 교수에 의해 1월 28일 오후 7시 칼튼 대학교 Kailash Mital Theatre에서 판소리 "심청가"를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2014년에 온주 구엘프 대학교에서, 2016년에는 칼튼 대학교에서 한 학기 씩 "예술가 해외거주 프로그램(Artist-in-Residency)"을 진행

해온 김동원 교수가 1월 27일 2개의 앨범을 발매하는 기념공연 "Dong-Won Kim Double CD Release Concert"를 개최하며, 구엘프에 위치한 Musagetes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판소리 공연을 구엘프 및 오타와에서도 개최하게 됐다.

깊은 계곡에서 옮겨온듯한 우리가락 우리소리 "심청가"를 지면으로 전한다. -신지연 지국장-

"몇백년된 이야기 노래를 씹고씹고 또 씹어 한번 소화를 시키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30년된 우정이면 저렇게 죽이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혼을 담아 쏟아낸 소시민 심봉사와 심청이의 한. 엄청난 슬픔을 더딘고 삶을 살아내면서도 결국엔 하찮은것과 이사람 저사람에 울고 웃다 70이 되는... 구수하면서 기가 넘치는 퍼포먼스의 휘트와 유머. 덕분에 저도 저의 삶을 잠시 멈추어 돌아보고 잠시 웃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진 이민난민시민부 합창단 지휘자

"아름답고 우수한 한국의 전통 음악을 캐나다 현지 음악인들의 초청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음악이라는 만국공용어를 통해 현지 한인 2세대뿐 아니라, 캐나다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류은규 새생명 한의원 원장

한국의 판소리는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다양한 우리 정신문화가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모든 민족의 DNA와 같을 것입니다.

판소리는 바로 우리 언어가 가지고있는 것을 그대로 소리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을 가지고 이곳 오타와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되고 자랑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극장음향감독이 판소리를 듣고 난 소감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판소리는 마치 옛날 오페라 발성 방식을 지닌 예술같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지한 소리에 감명을 받았고 충격이었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극장에 계신 관중의 규모를 떠나서 판소리에 담긴 총체적인 우리의 문화정서를 이곳 캐나다 천지에 깊이 깊이 새겨놓는다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와 예술은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의 격조와 수준에 대해서는 중국문화 틈에 끼여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들을 깨우쳐주고져 늘 무대에서 온힘을 다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문화가 이곳 오타와의 문화와 다르지만, 오타와의 역사와 환경과 사람들의 정서를 몸에 실고 모든 문화는 한결이라는 심정으로 노래했습니다.

이번 오타와 공연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명창 배일동

심청가

(상) 왼쪽부터 명창 배일동, 교수 김동원
(중)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명창 배일동 (하) 관객들과 기념촬영



"이번 오타와에서의 공연은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정통 판소리 공연이었습니다. 우선 예전에 야외에서 남성들이 하던 우렁찬 판소리 발성 자체가 이제는 듣기 힘들어졌으니까요. 또한 배일동 명창의 진실한 감정 표현을 담은 연기는 언제 보아도 명품입니다. 아름다운 오타와에 곧 다시 오게 되길 바랍니다." =교수 김동원



곽선경, 마스킹테이프로 공간 재창조(1)

Sun K. Kwak: Untying Space_CUAG
Carleton University Art Gallery
St. Patrick's Building
15 January - 29 April 2018

곽선경은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뉴욕대학 대학원 Studio Art 졸업하고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개최해온 설치작가로,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오타와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다.



Sun K. Kwak: Untying Space_CUAG
작가 곽선경, 마스킹테이프로 공간 재창조!
Photo and caption by Jiyeon Shin

we are a church, walking the Way together through the wilderness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
금요 찬양과 기도: 금요일 저녁 8시

해외한인 장로회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10 Chesterton Dr. Ottawa
613-314-4113 / www.okpc.ca

2월 중순 오픈 예정

정육 코너

캐나다 정육학교 출신의 경험 많은 정육사가 양질의 고기를 제공합니다.

베이커리

한국 제빵 과정을 수료한 능력있는 제빵사가 매일 맛있는 빵을 선보입니다.

정관장

세계적인 건강 제품 정관장이 개장합니다.

조리 식품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조리하는 맛있는 한국 음식 - 잊었던 엄마의 손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오픈 날짜는 다음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SEOUL Mart

Cell. 204 510 8812 Tel. 613 567 9988
22 Pretoria Ave, Ottawa, ON

정관장 홍삼정
환절기 면역력 증진과 개선은

사양하는 가족과 소중한 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 매년 1,000,000 명 이상 판매
- 0초에 한 병씩 판매
- 3,000 억원 대 연 매출규모
- 2014 년 할랄푸드 인증
- 5,000,000 명 이상 누적판매

SEOUL Mart, KOREA GINSENG CORP

전문적인 서비스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박 영석 Young Park

(613) 795-1567

ypark@royalpage.ca

4-3101 Strandherd Dr. Ottawa K2G 4R9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인

ROYAL LePAGE
Team Realty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age

"I will find you a home,
not just a house."

kw INTEGRITY REALTY
KELLERWILLIAMS.

오타와지역
부동산
전문

Wen Lee 이원경
Sales Rep. wenlee@kw.com
613-219-8972

Keller Williams Integrity Realty, Brokerage
2148 Carling Ave. Ottawa, ON K2A 1H1
613-829-1818



신광훈 변호사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유산/상속법 지적재산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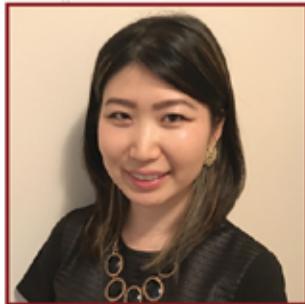
공증 및 기타 법률서류 작성

HARMONY
LAW GROUP

khshin@harmonylawgroup.com

TEL 613-709-4851

FAX 613-916-6007



법무사 이경진

자동차 정비 \$30 오일/필터 교환

예약 및 문의: 613-695-9688



믿고 맡길수 있는 정비소

"안전해얌 내차
제대로 고치세요!"



Onion Auto Service

30 Cleopatra Drive, Unit C, Nepean, On K2G 0B3

www.onionautoservice.com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지켜온 한식당, 고급
편안하고 고향 같은 한국 전통 실내 분위기
정갈하고 깔끔한 맛과 정성이 가득한 메뉴
두 개의 단체 객실(10-15인수용)
단체 연회석(110인석)
넓은 무료 주차장

Fine Korean Cuisine
Fully Licensed

Tue-Sun: 11:00am~10:00pm

Catering/Take Out

www.koreanpalace.ca



610 Somerset St. W. Ottawa, ON K1R 5K4 Tel:(613) 321-3911 Fax:(613) 321-3922

kw
KELLERWILLIAMS



콘도·하우스
투자용 주택·건물
상가·사무실

✓ Keller Williams Canada 1%

✓ 2014, 2015, 2016 Keller Williams Medallion Award

✓ 오타와 거주 15년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인 부동산 중개사

Moonok Reed
Sales Representative




Direct: 613.447.5007

Office: 613.829.1818

Email: mreed@kw.com

김문옥
Moonok Reed



한국식품
montrealkoreanfood.com
koreanfoods@gmail.com
6151 Sherbrooke.w [본점]
1829 Ste-Catherine w [다운타운점]
514-487-1672

[절인배추 주문 판매]
하루전 3시 이전 주문 요망
최소 주문 반박스


[오타와 배달]
매주 토요일

[본점영업시간]
월-금: 9am-9pm
토: 9am-8pm
일: 11am-7pm

[다운타운점영업시간]
월-토: 10am-10pm
일: 11am-8pm

[김치제조 주문]
포기김치, 막김치
최소주문 반박스

인터랙 또는 현금 구매시
2% 적립
(일부품목은 적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BIG Sale





삼립 보름달 \$2.99/2봉지
신라면.안성탕면 \$6.99/2
육개장, 김치, 신사발 \$10.99/12
수라상 서울식 포기김치 5kg \$17.99
수라상 남도식 포기김치 5kg \$17.99




신제품 NEW

폭무원 연두부 4컵
홈메이드 떡갈비 \$9.99/5개




신컵(6) \$5.99



밀떡 떡볶이

Special events!





허니버터 칩 2팩 \$3.99 **청정원 순창된장 1.8kg(\$5.99)을 구매하면 450g 제품을 더 드립니다** **순창 고추장 2kg \$13.99**

+++++납품업무를 모십니다+++++

한국식품에 판매음식을 납품하실 개인이나 업체를 기다립니다.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각종 밀면, 떡, 예그릴, 스프링클, 각종 국거리, 청포묵, 도토리묵, 분말면의 특별 음식 등...
포장되어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가능 합니다.
연락 주세요

신고배
KOREAN SHINGO PEARS
5kg (11 lb)
\$29.99



유안농장 배추 \$25.00



최상의 품질의 쌀을 최저 가격으로 즐기세요

쌀 스페셜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쌀 드세요



황금쌀 (40lbs) \$29.99
현미 (15Lbs) \$13.99
현미참쌀 (15Lbs) \$15.99
반반미 (15Lbs) \$18.99
참쌀 (15Lbs) \$15.99

고박님~ **너무싸서 당황 하셨어요?**
세상에 밀지는 장사가 어딴냐구요?~ 여기있네요!





동원 참치죽 \$1.99
퀴노아 햇반 (3개들이) \$3.99
렌틸콩 햇반(3개들이) \$2.99
향신간장(조림용) \$2.99
아침햇살 1.5L \$2.99
제주 감귤유과 \$14.99 ~~\$25.99~~
한국산 들깨 400g \$7.99
삼립냉동우동면(5) 2개 \$6.99
일본 도라야끼 5pcs \$3.99
쌀 누룽지 150g \$1.99
현미누룽지 150g \$1.99

짜왕 매운맛



결혼식, 장례식, 생일상, 동창회
각종 모임 음식
한국식품 웨프에게 맡기세요



뚜껑형 221L



\$1849 +Tx+운송



조선대파 **인국깻잎**




청양 고추



\$28.00
햇 고구마



\$17.99
수라상 김치 5kg



구인 주말(토.일)

NEW 한국산 전기요 \$49+Tx



한국식품 김치병(4.4L, 2L)
깨끗한 빈병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개당 50센트

정교자
내 로젠 매네 건강식품 코너
아사이베리, 각종 다이어트 저용구비
514-487-5104

유한양행
매치머리용 천연무우
매치머리용 천연무우

한국식품 컴퓨터 수리서비스
514-573-2334
오늘 맡기고 내일 찾아 주세요

이사 514 994-1743

김치냉장고 업체
180리터
\$1499 +Tx +운송비

김치냉장고 업체
180리터
\$1499 +Tx +운송비